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화성 기반 창작학습지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수업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춘 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박 귀 영

2010년 8월

화성 기반 창작학습지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수업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춘 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 년 8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제출자: 박 귀 영

박귀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0 년 8 월

심사위원장 김 정 희 ㉠

심 사 위 원 허 대 식 ㉠

심 사 위 원 이 춘 기 ㉠

<국문 초록>

## 화성 기반 창작 학습지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수업 연구-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박 귀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춘 기

본 연구는 국악에서 사용하는 기보법인 정간보(井間譜)와 칼 오르프(Carl Orff)의 학습방법을 접목하여 개발한 화성 기반 창작 학습지인 선율보를 이용 교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여 음악 창작 수업의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도 J중학교 1학년 남학생 149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지와 사전 검사를 통해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하여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반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반 간의 음악 창작 활동 차이 여부를, 사후 검사를 통해 검증하고 분석하였다.

본 실험은 짧은 수업으로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차시로 진행하였으며, 교육부에서 개발한 음악 창작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개발한 사전검사지, 사후검사지, 및 채점표를 사용하였다. 사전검사 결과 실험반과 비교반 간에는 작곡활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이 동질화 되었으므로, 사후검사의 평균과 분산을 산출하고, SPSS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T-검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이 일반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 보다 적합성 중 가락의 진행 능력이 높았다.

둘째,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이 일반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 보다 적합성 중 화음의 시작과 마침을 적용하는 능력이 높았다.

셋째,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이 일반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 보다 기보법 중 음표 쉼표의 기보력에 차이는 없었다.

넷째,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이 일반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 보다 기보법 중 기호 기보력에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화성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창작 학습지는 중학생의 음악 창작 후 적합성에 준하는 실질적 작곡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음악 창작 수업 시간의 제약과 간편한 창작 수업 도구가 부재하여 창작 수업의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흥미도 떨어졌으나 본 수업 도구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도 높은 성취도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화성 기반 선율보를 통한 음악 창작 수업은 짧은 시간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음악 창작 수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수업 지도안이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기보력은 창작 수업을 통해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음악 창작 평가보다는 오히려 이론적 수업의 범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향후 교육 과정에서는 음악 창작에 대한 평가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보장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화성 기반 선율보는 작곡의 가장 기초를 시작하기 위한 창작학습지이다. 선율보로 작곡에 대한 성취감을 느낀 후 자신만의 독창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계별 구체적인 방법이 향후에 더욱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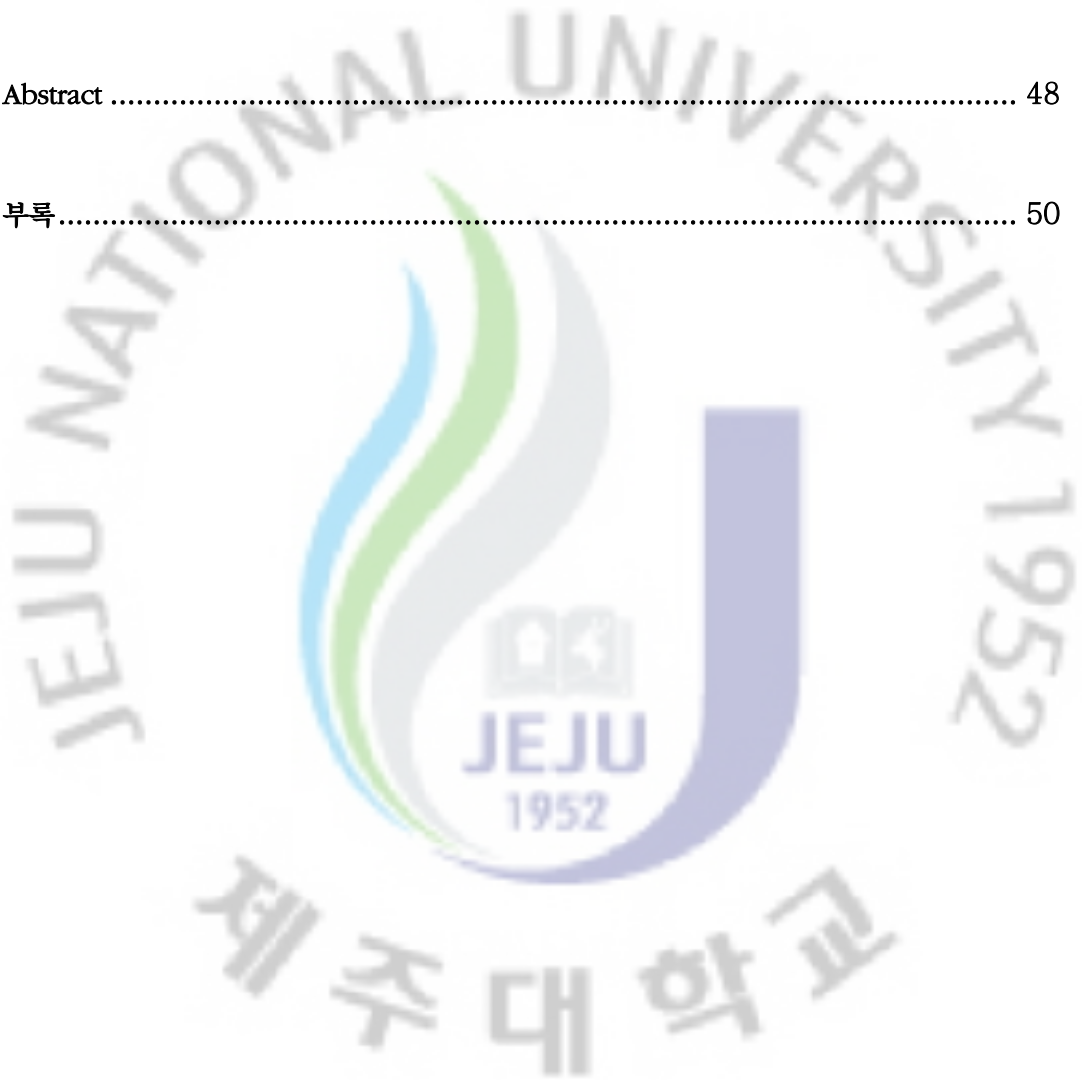
---

※ 본 논문은 201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I. 서론 .....	1
1. 목표와 필요성 .....	1
2. 연구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4
4. 연구의 한계 .....	5
II. 이론적 배경 .....	6
1. 선율보의 이론적 배경 .....	6
2. 리듬 학습을 위한 정간보 이용 .....	10
3. 음악 창작 교수 학습의 중요성 .....	12
4. 선행 연구의 고찰 .....	16
III. 연구 가설 .....	19
IV. 연구 방법 .....	20
1. 연구 설계 .....	20
2. 연구 대상 .....	20
3. 사전 설문 조사 .....	21
4. 사전 검사 .....	24
V. 연구 도구 .....	26
1. 처치 도구 개발 .....	26
2. 측정 도구 .....	31
3. 평가 및 검증 방법 .....	34
4. 관찰자간의 신뢰도 .....	34
VI. 연구의 결과 및 분석 .....	35
1. 종합 결과 .....	35
2. 반별 분석 .....	37
3. 결과 분석 .....	39

VII. 논의 및 결론 .....	41
1. 요약 .....	41
2. 논의 .....	42
3. 결론 및 제언 .....	43
참고문헌 .....	45
Abstract .....	48
부록 .....	50



## 표 목 차

표 1. 음악 창작 수업 경험 및 의견.....	2
표 2. 제 7차 음악과 교육 과정 중 창작 영역 체계.....	15
표 3. 연구 대상 인원 및 처치 방식.....	20
표 4. 연구 대상의 사전 검사 결과.....	24
표 5. 실험반 및 비교반 연구 대상.....	24
표 6. 사전 검사 차이 검증 결과.....	25
표 7. 비교반의 음악 창작 수업안.....	29
표 8. 실험반의 음악 창작 수업안.....	30
표 9. 중학교 1학년 음악 창작 성취 기준.....	32
표 10. 중학교 1학년 음악 창작 평가 기준.....	32
표 11. 연구 대상에 대한 평가표.....	33
표 12. 평가 관찰자간의 신뢰도 결과.....	34
표 13. 연구 대상의 사후 검사 결과.....	35
표 14. 사후 검사 차이 검증 결과.....	36
표 15. 실험반(1반)과 비교반(2반)의 사후 검사 차이 검증 결과.....	37
표 16. 실험반(1반)과 비교반(3반)의 사후 검사 차이 검증 결과.....	38

## 그 립 목 차

그림 1. 리듬 학습법에서 이용된 가사 고저 도표 및 그림 악보.....	9
그림 2. '시용향악보' 소재 정간보.....	10
그림 3. 서양 리듬 및 악보를 국악의 정간보를 이용해 표현한 사례.....	11
그림 4. 가사의 리듬을 이용한 정간보 형식의 가락 짓기 악보.....	12
그림 5. 연구 진행 과정.....	20
그림 6. 음악 교과에 대한 흥미도 조사.....	21
그림 7. 음악 교과에 대한 선호 분야 조사.....	21
그림 8. 음악 교과에서 주로 받은 교육 영역.....	22
그림 9. 음악 교과에서 창작 수업 횟수.....	22
그림 10. 자신의 음악 작곡 실력에 대한 평가.....	23
그림 11. 음악 창작 수업에 참여 태도.....	23
그림 12. J. S. 브루너(J.S. Bruner)의 3단계 음악적 표현 형식.....	26
그림 13. 화성 기반 선율보의 변형 방식.....	27
그림 14. 선율보의 화성 선택 방식과 구성음의 위치 변화.....	28
그림 15. 선율선과 화음 기반 선택음을 접목한 창작용 선율보.....	29



# I. 서론

## 1. 목표와 필요성

칼 오르프(Carl Orff)<sup>1</sup>는 음악이 나이와 재능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며, 음악 교육은 평범하고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그의 음악적 이념을 담은 오르프-슐베르크(Orff-Schulwerk)<sup>3</sup>는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는 아동들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기초 음악의 개념을 바탕으로 음악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즐겁게 음악을 만드는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sup>4</sup>는 다중지능이론에 따라 음악재능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며 학습자에게 좋은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5</sup> 이는 교사가 흥미로운 학습도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학습자의 음악재능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J. S. 브루너(J.S. Bruner)<sup>6</sup>는 ‘교육의 과정’에서 교과 내용의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학생들은 지식 습득에 있어서 학자들과 수준은 다르더라도 그 종류에 있어서는 동일해야 하며, 학습은 하나의 영역에 치우쳐서는 안되고 그 교과의 모든 영역을 다루어 구조를 깨닫게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하였다.<sup>7</sup> 따라서 음악 교과를 잘 가르친다는 것은 음악의 주요 요소인 창작, 연주, 감상의 분야를 모두 골고루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과의 목표는 음악성 계발, 창의성 계발, 음악적 정서 함양의 세 가지로 함축되며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균형 있는 음악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창작 활동은 즉흥 연주 활동이나 작곡 활동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그 활동을 거침으로써 음악 개념을 쉽게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실제 음악 수업을 통하여 습득한 개념을 활용하여 악곡을 만들고, 자

<sup>1</sup> 칼 오르프(Carl Orff). 독일의 작곡가 음악 교육가(1895~1982).

<sup>2</sup> 윤영배·정윤석(2005). 「오르프 접근법과 악기 앙상블」 (제1집), 서울 : 창지사, p. 19.

<sup>3</sup> 칼 오르프(Carl Orff)와 구닐트 키트만(G. Keetmann)이 함께 만들어낸 어린이를 위한 음악교수법.

<sup>4</sup>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발달심리학 교수(1943-)

<sup>5</sup> T. Armstrong(1998). 「복합지능과 교육」, (진윤식, 강영심 역),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p. 32.

<sup>6</sup> J. S. 브루너(J.S. Bruner),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1915-)

<sup>7</sup> 김종서(1997).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 교육과학사, pp. 283~284.

신의 음악적인 생각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이 개발되고 신장될 수 있다.<sup>8</sup>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이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하여 국악에서는 ‘기악’으로, 양악에서는 ‘창작’으로 응답하였으며, 학생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으로 국악에서는 ‘기악’으로, 양악에서는 ‘창작’으로 응답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창작수업을 할 수 있는 지도안의 연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하겠다.

창작수업이 음악수업에서 소홀해진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작곡이나 즉흥 연주 분야의 경험이 없으며,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 창작 지도에 대한 방법이나 지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0</sup>

<표 1>은 문나옥(2007)의 논문에서 학생들에게 창작의 경험과 창작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선율이나 리듬에 대한 창작 경험은 있으나 화성 창작의 경험은 없으며 무조건 어렵다는 대답이 절반을 넘고 있다.<sup>11</sup>

표 1. 음악 창작 수업 경험 및 의견

창작 경험 및 횟수	비율	창작에 대한 의견	비율
선율 창작	59.5%	무조건 어렵다	59.5%
리듬 창작	32.5%	다소 어려우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다	10.8%
선율에 반주 붙이기	8.1%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배우면 할 수 있을 것이다	24.3%
화성 창작	0%	쉽고 재미있다	5.4%

<표 1>의 결과에서 보듯이 다소 어려우나 체계적으로 배우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인 화성 창작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안을

<sup>8</sup> 이홍수 외 3인(2007). 「중학교 음악 교사용지도서」, 서울 : (주)두산, p. 12.

<sup>9</sup>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 학습방법 연구」,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 43.

<sup>10</sup> 석문주(2001). “음악과 창작수업의 교육적 효과”, 「논문집」, 음악교육연구 제20집, 한국음악교육학회, p. 94.

<sup>11</sup> 문나옥(2007). “대위적 기법을 활용한 창작수업 연구 -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p. 21~22.

제시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창작영역을 더욱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선민정(2003)의 논문에서 현직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경우 창의력 향상 도움이 되는 음악 분야로 창작 활동이 73%라고 응답했으나 실제 교육 과정 중 40%가 실시하지 않는다고 모순적인 답변을 하였다. 스스로 창작 학습 지도 능력이 없다는 답변도 60%를 넘었다. 또한 창작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기존 교과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창작 지도 방법 연구를 해 보았다는 응답은 60%를 넘었으나, 실제 연수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13% 밖에 되지 않았다. 연수 기회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로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2%를 넘었다.<sup>12</sup>

즉, 창의력 계발을 위한 창작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 거의 가르쳐지지 않거나 교육이 되더라도 학생들의 흥미를 끌면서 교사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 교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음악 창작 능력을 향상 시키고 교사들이 쉽게 지도할 수 있도록 화성 기반 선율보를 이용한 음악 창작 학습 방법을 개발 적용하여 그 결과 중학생의 작곡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화성 기반 창작학습지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 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는 작곡활동의 차이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 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 적합성 평가 중 가락의 진행 영역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2)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 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 적합성 평가 중 화성의 시작과 마침 영역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3)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 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 적합성 평가 중 음표/쉼표의 기보 영역

---

<sup>12</sup> 선민정(2003). “음악과 창작학습에 있어서 창작학습지를 활용한 지도방법 연구 - 중학교 1학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p. 23~27.

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4)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 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 기보력 평가 중 기타 음악 기호의 기보 영역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 3. 용어의 정의

#### 1)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

본 연구에서의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이란, J. S. 브루너(J.S. Bruner)의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표현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작곡능력의 차이를 고려하고 음악적 개념 학습이 종합적인 작곡활동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구안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이다.

#### 2)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이란, 학생들의 작곡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교과서에 제시된 창작 내용을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학습방법이다.

#### 3) 작곡 활동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창작을 크게 즉흥연주와 작곡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작곡활동은 중학교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는 작곡활동으로 리듬과 가락창작을 통한 한도막 형식의 노래 만들기를 의미한다.

또한 작곡활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에서 개발한 창작 영역 평가 요소 중 적합성, 기보력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한다.<sup>13</sup> 단, 평가 영역 중 독창적인 동기 전개와 절정 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독창성 부분은 본 연구의 교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 자체를 생략하였다.

가. 적합성이란 가사와 가락의 어울림, 마침법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락의 진행 및 화성의 시작과 마침을 나누어 객관적인 평가표에 의거해 평가한다.

나. 기보력은 주어진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음표와 쉼표, 악상기호를 기보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객관적인 평가표에 의거해 평가한다.

<sup>13</sup>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 - 중학교 음악 - 」,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 137-138.

####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J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동일지역의 같은 학년의 남녀학생 수준 차와 타 지역과의 차이점과 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음악 교수 방법의 목표는 음악을 다루는 기술인 노래, 악기 연주, 창작 등에서의 음악적 능력의 숙련과 음악의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sup>14</sup> 칼 오르프(Carl Orrf)의 음악교육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방, 탐색, 이해(악보 읽고 쓰기), 즉흥연주의 학습 과정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과정 대신 자신의 곡을 리코더로 불러보기, 노래로 불러보기의 활동으로 대체하였다.

위의 4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능력 향상을 이루게 되며 이 단계들을 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음악의 다양한 개념들을 배우게 된다. 각 단계들은 수업 안에서 한 가지 단계가 쓰이기도 하고 여러 단계가 복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실제로 이미혜(1995)는 음악 학습 단계로 먼저 교사를 모방하면서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음악의 탐험에서 노래의 한 부분을 강약, 박자, 빠르기, 형식, 멜로디의 흐름 등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느낌의 다른 노래를 만들어 보며, 음악의 이해에서 음악의 소리를 상징하는 시각적 악보를 하나씩 소개 받는다고 하였다.<sup>15</sup>

본 연구에서는 칼 오르프(Carl Orrf)의 학습단계를 차용하여 기존 곡을 그대로 따라하기(모방), 선율선이나 화성에 변화를 주어 기존 곡 변형하기(탐색), 새로운 선율선과 화성으로 곡을 만들고 기보하기(이해)의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교안을 작성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화성 기반 선율보를 구성하기 위한 음악 교육학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선율보의 이론적 배경

선율(旋律, melody)이란 음악에서 일련의 음높이에 리듬적 요소를 부과해서 미적으로 배열한 결과이다. 하나의 선율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선율은 윤곽을 갖는다. 윤곽은 선율이 이루는 대강의 전체적 모습으로, 상승하강, 상승하강(혹은 하강상승), 위아래의 계속적 진동 등 여러 가지 특징적 방식으로 움직이는 곡선이다. 둘째, 선율은 음역을 갖는다. 음역은 인간이 귀로 지각할 수 있는

<sup>14</sup> 이흥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p. 29.

<sup>15</sup> 이미혜(1995). “칼 오르프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지도법에 관한 분석 연구”, 「논문집」, 제18집, 진주전문대학, p. 183.

음높이 범위 안에서 어떤 공간에도 위치할 수 있다. 셋째, 선율은 음계를 갖는다. 음악이 고도로 발전한 문화권에서는 선율을 만드는 기초 체계로써 음계가 사용된다. 그러나 음계는 음들을 음높이의 순서로 나열함으로써 선율로부터 추출해낸 것이므로 음계보다 선율이 먼저 생긴 것인데, 특정 음계는 선율의 전체적 성격을 결정한다.<sup>16</sup>

음악의 선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에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런 음악적인 표현이 숨어있다. 우리가 하는 일상언어에는 음의 장단, 강약, 고저 등의 일정한 운율적 특징이 있다. 말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자음과 모음들이 얼마나 길게 내고 크게 내며 또 높게 내느냐 등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음의 장단, 고저, 강약을 운율적 특질이라 한다. 이것을 제대로 살리면 말과 시, 노래가 자연스럽다.<sup>17</sup>

칼 오르프(Carl Orff) 역시 음악과 언어와 율동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단 일화 된 음악을 이루는 원초적 요소라고 주장 했다.<sup>18</sup>

특히, 리듬은 ‘주기적 운동(흐름)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강약이나 장단의 배치’로써 악센트, 초점, 억양 등과 함께 운율을 구성하는 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도 운율과 리듬이 분명히 있다.<sup>19</sup>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sup>20</sup>는 가사가 음악에 있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이론은 그의 오페라 기법에 사용되었고, 독일에서 그의 영향을 받은 하인리히 쉬츠(Heinrich Schütz)<sup>21</sup>를 통해서 전수되어 오늘날의 가사와 음악이 가장 잘 결합되었다는 독일 가곡이란 장르가 생겨났다.<sup>22</sup>

빌헬름 리하르트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sup>23</sup> 역시 “말과 음악과의 완벽한 일치를 찾는 것은 가사의 리듬적 낭독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했으며 클로드 아실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sup>24</sup> 의 작곡 기법은 “가사의 극히 제한된 암시를 음악에 반영할 뿐 더 이상의 과장이나 극화시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

<sup>16</sup> 브리태니커편찬위원회(1993). 「브리태니커세계백과사전」 (제12권), 서울 : 브리태니커· 동아일보 공동출판, p. 62.

<sup>17</sup> 강성순(1997). “동시를 활용한 음악적 즉흥 표현 지도 방안 탐색” ,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 9.

<sup>18</sup>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07). 「음악교육의 기초」 , 서울 : 교육과학사, p.219

<sup>19</sup> 김명희(2008). “동시 속 언어 리듬을 이용한 리듬 학습과 가락 짓기 지도 방안 연구 - 초등학교 3학년 을 중심으로 -” , 碩士學位論文,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 6.

<sup>20</sup>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이탈리아의 작곡가(1567-1643).

<sup>21</sup> 하인리히 쉬츠(Heinrich Schütz). 독일의 작곡가(1585-1672).

<sup>22</sup> 이도식(1980). “가사와 음악적 표현에 관한 연구” ,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대학원, p. 58.

<sup>23</sup> 빌헬름 리하르트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독일의 극음악 작곡가· 이론가(1813-1883).

<sup>24</sup> 클로드 아실 드뷔시(Achille Claude Debussy). 프랑스의 작곡가(1862-1918).

다.<sup>25</sup>

앞에 열거된 음악가들의 주장과 같이 가사와 시의 운율은 노래를 창작하는데 있어 많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칼 오르프(Carl Orff)는 언어를 통한 리듬연습에서 말(언어)을 음악경험의 한 요소로 보고 언어의 운율(Speech Pattern)을 먼저 습득하면서 음악의 장단, 강박, 박자감을 습득하게 되고 규칙적이거나 불규칙한 소절을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리듬 연습을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인식 하였다.<sup>26</sup> 또한, 그의 음악 지도는 말하기와 노래 부르기를 하나의 학습체험으로 결합 시킴으로써 두 가지 활동이 서로 보완되고 강화된 효과를 얻고 있다. 즉, 말의 리듬 학습에서 언어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함으로써 리듬으로부터 선율이 발생하도록 이끌고 있다.<sup>27</sup>

이와 같이 가사로 쓰이는 언어의 운율은 그 자체에서 자연스러운 리듬과 선율선을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오세균(2002)은 그의 논문에서 칼 오르프(Carl Orff)의 리듬학습법에 말의 고저를 결합한 교수법을 제시하였는데, <그림 1 (a)>와 같이 리듬, 빠르기, 음고(音高), 강약을 자유롭게 하되 그림내의 글자 간격을 존중하여 비례적으로 리듬 및 음고를 정하는 그림 악보를 만들었다.<sup>28</sup> 이주미(2001)의 논문에서도 <그림 1 (b)>와 같은 그림 악보를 사용한 창작방법을 제시하였다.<sup>29</sup>

본 연구에서 도입된 선율보도 앞서 연구된 가사와 리듬 및 음고의 결합과 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은 가사를 읽은 후 자신이 생각하는 리듬과 고저에 따라 선율선으로 표시하여 이것을 선율보에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sup>25</sup> 이도식(2001). 「노래, 가창 그리고 음악표현」, 서울 :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p. 83.

<sup>26</sup> 배경(2000). “자크 달크로즈와 칼 오르프 리듬지도 방법의 비교연구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碩士學位論文,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 23.

<sup>27</sup> 서영화, 조아라(2004). “칼 오르프의 음악교수법을 적용한 중학교 음악수업안 연구”, 「논문집」, 제 25권 1호,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과교육연구회, p. 109.

<sup>28</sup> 오세균(2002). “오르프 학습법에 의한 음악의 지도”, 「논문집」, 제39호, 청주교육대학교, p. 189.

<sup>29</sup> 이주미(2001). “음악교육에서 다중지능이론의 적용 방안 연구 - 창작학습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 39.



그림 1. 리듬 학습법에서 이용된 가사 고저 도표 및 그림 악보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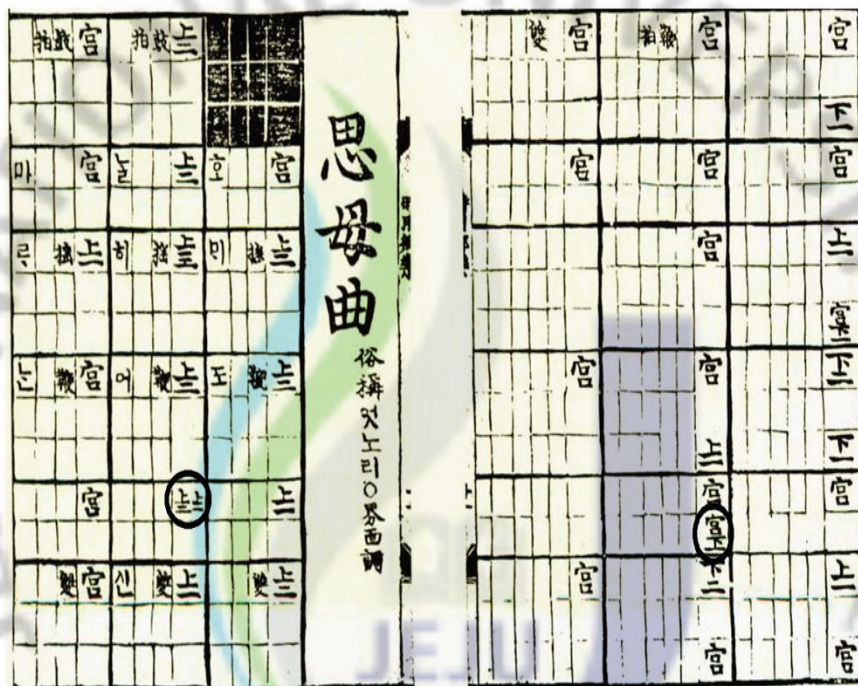
(b)



## 2. 리듬 학습을 위한 정간보 이용

정간보는 조선 세종 때 창안된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有量樂譜)이며 그 모양이 마치 우물 정(井)자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간(間)은 음의 길이를 나타낸다.

그림 2. '시용향악보' 소재 정간보<sup>30</sup>



정간보의 원래 표기는 세로 쓰기로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줄에서 왼쪽 줄로 읽어나가는 악보이다. 쉼표는 세모 기호를 통해 나타나고 곡의 끝은 마침표(점 가로줄)로 나타나며, 숨표 및 다양한 장식음과 부호가 사용되고 있다.<sup>31</sup>

정미(2007)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간보 형태의 시가와 서양 리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값으로 표현하고, 정간보와 서양리듬의 접목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리듬악보를 만들어냈다.<sup>32</sup>

<sup>30</sup> 홍선혜(2006). "음악수업에서의 효율적인 정간보 기보체계 방안 : 초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碩士學位論文,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 14.

<sup>31</sup> 김은실(2007). "구안된 정간보의 단계적 적용 과정을 통한 창작 지도 방안", 碩士學位論文,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p. 17~18.

<sup>32</sup> 정미(2007). "창작 수업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타악창작과 노래창작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pp. 43~45.

그림 3. 서양 리듬 및 악보를 국악의 정간보를 이용해 표현한 사례

정간보 길이	시가(예)	서양리듬		
		음표모양	이름	점표모양
	400		은	
	$(400+200)/2$		점이분	
	200		이분	
	150		점사분	
	100		사분	
	75		점팔분	
	50		팔분	
	37.5		점십육분	
	25		십육분	

㉠ 

중	소	가	은	인	계	들	려	...	온	다	△
	리			하							

㉡ 

오	푸	바	람	불	어	와	푸	른	빛	물	결	일	으	킨	다-	네
	른															

서양리듬을 정간보에 가사로 바꿔 써보기

밤 새 워서 국 어 공 부 머 리 쥐 나 게 수 학 문 제

밤	새	워	서	△	국	어	공	부	△	머	쥐	나	게	△	수	학	문	제	△	
	워																			

김명희(2008)는 초등학생들이 시의 리듬을 이용하여 정간보 형식의 악보에 가락 짓기를 쉽게 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간이 악보를 제시하였다.<sup>33</sup>

그림 4. 가사의 리듬을 이용한 정간보 형식의 가락 짓기 악보

‘술·파·미·레·도’ 간이 악보 3단계

가사	운	동	회	날	달	리	기	를	한	다				
리듬	♪	♪	♪	♪	♪	♪	♪	♪	♪	♪				
술				●		●			●	●				
파			●			●		●						
미	●	●					●							
레														
도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간보를 이용한 창작 지도 및 악보 구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화성을 기반한 선율과 리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화성 기반 선율보는 선율과 리듬 중심의 기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간보의 개념을 변형 확장시켜 1간을 1박으로 정하여 각 마디마다 화음을 지정하였다. 작곡의 초기 단계에는 한 마디당 한 화음만을 쓰도록 하였다.

### 3. 음악 창작 교수 학습의 중요성

#### 1) 지속적 창의성 계발과 음악 개념 훈련

창의성 계발은 시대적 요구이며 국가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음악교과에 대한 국가 교육적 차원의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음악과의 기초 교육에서 의도하는 창작 교육이 인간 본연의 창조적 특성으로 보는 상상력, 문제 발견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집중력과 탐구력 뿐만 아니라 독창성, 즉흥성,

<sup>33</sup> 김명희(2008). “동시 속 언어 리듬을 이용한 리듬 학습과 가락 짓기 지도 방안 연구 - 초등학교 3학년 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 50.

융통성 등 인간의 삶을 새롭고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4</sup>

J.S. 브루너(J.S. Bruner)는 교육의 직관적 사고의 훈련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직관적 사고란 ‘전체’를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음악에서 직관적 사고는 작곡, 편곡, 즉흥연주 등을 통해서 고무될 수 있다. 이에 J. L. 뮌셀(J.L. Mursell)<sup>35</sup>은 ‘창의적 활동’보다는 ‘작곡’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여, ‘작곡’이 더 분명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작곡은 모든 음악행위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으로 그것은 표현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음악재료들의 사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 발전적인 가치와 교육적 중요성이 있다.<sup>36</sup>

특히, 인간은 처음 접하는 사물이나 상황이라도 여러 번 경험함으로써 차츰 그것에 친숙해지고 그 친숙해진 상태를 바탕으로 새로운 탐색과 사고, 조작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정복하게 되며, 더 나아가 그것을 재편하고 재조직하고 변형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고무공을 오랫동안 책상 속에 넣어두면 탄력성이 점점 소멸되어 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창의성도 오랫동안 자극하지 않으면 점점 소멸된다.<sup>37</sup>

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은 창작 자체의 가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음악적 개념과 원리의 이해를 위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원래 작곡이라는 행위는 우리들이 느낀 것을 음과 리듬의 패턴으로 번역하는 행위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제나 학생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작곡을 하려고 하는 기분을 유발하여 보통의 음악적 능력만으로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음악적 반응을 현저히 발달시키는 활동이다.<sup>38</sup>

학습자는 음악을 통해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만들어진 창작품을 접하게 되면 그 수준과 질이 어떠한 가치 있는 체험이 된다. 이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창작 활동을 통해 더 쉽게 음악적 개념과 형식, 구조, 원리를 경험하게 되고, 선율, 리듬, 화성 등의 음악의 요소가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스스로 익히며 이해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통해 음악은 비로소 딱딱한 이론에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소리의 예술로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창작은 음악적 개념과 원리의 이해를 위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sup>34</sup> 김광휘(1995). 「중등학교의 창작지도」, 서울 : 음악교육연구, p. 151.

<sup>35</sup> J. L. 뮌셀(J. L. Mursell). 미국의 음악교육자(1893-1963).

<sup>36</sup> 방금주(1993). 「음악인을 위한 창작 지도법」, 서울 : 삼호출판사, p. 23.

<sup>37</sup> 이흥수(1992). 전개서, p. 169.

<sup>38</sup> J.L. Mursell, (1986). 「음악성장을 위한 교육」,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p.172.

## 2) 창작 수업에 있어 교사의 중요성

하워드 가드너(Harward Gardner)는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이론에서 음악적 창의성은 누구나 타고나는 보편적인 능력 중의 하나이며, 그것을 잘 이끌어주면 누구나 창의성이 발휘 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39</sup> 따라서 교사는 음악학습에서 모든 활동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여러 음악 활동영역을 통해 창의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계획적이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이해하고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은 물론 학생들의 음악적 호기심을 유발 시키고 그것을 창의성을 발휘해 표현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바람직한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은, 틀에 박힌 교수법에 얽매이지 않고 개개 학생이나 학급 전체의 집단적인 특성을 재빨리 파악하여 거기에 알맞은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하고, 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sup>40</sup>

이홍수는 창작 활동에서 교사는 결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게 하는 과정 또한 중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sup>41</sup> 창작활동과 창의성 계발이 음악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능위주의 가창, 기악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홀이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 3)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창작 내용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창작 영역의 내용체계는 <표 2>와 같다.

이러한 음악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채희자(2005)의 논문에서는 7학년 9종 음악교과서 분석에 있어서 창작영역 중 ‘작곡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음악 교과서에 따라 작곡활동비중이 모두 달랐으며 음악 교사들이 어떤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창작 수업의 비율이 많은 차이점을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sup>42</sup>

<sup>39</sup> 박선영(2006). “중 고등학교 음악교사들을 통해 살펴본 창작교육 실태조사”, 碩士學位論文,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14.

<sup>40</sup> 상창환·조효임·이동남 공저(1997). 「초등음악과 지도법」, 서울 : 삼호출판사, p.9.

<sup>41</sup>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p. 172.

<sup>42</sup> 채희자(2005).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창작영역 분석연구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 16.

표 2. 제 7차 음악과 교육 과정 중 창작 영역 체계

학년	창작 내용
중학교 1학년	<p>리듬과 가작을 만들어 즉흥 연주한다.</p> <p>배운 곡을 변화시킨다.</p> <p>가사에 어울리는 곡을 만든다.</p> <p>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는다.</p> <p>곡에 어울리는 반주를 만든다.</p> <p>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을 만든다.</p> <p>만든 곡을 발표한다.</p> <p>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p>
중학교 2학년	<p>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한다.</p> <p>주제를 변주한다.</p> <p>가사에 어울리는 곡을 만든다.</p> <p>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는다.</p> <p>곡에 어울리는 기악 반주를 만든다</p> <p>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곡을 만든다.</p> <p>만든 곡을 발표한다.</p> <p>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p>
중학교 3학년	<p>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한다.</p> <p>주제를 변주한다.</p> <p>가사에 어울리는 곡을 만든다.</p> <p>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는다.</p> <p>곡에 어울리는 기악 반주를 만든다.</p> <p>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곡을 만든다.</p> <p>만든 곡을 발표한다.</p> <p>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p>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제한점을 인식하여 음악 교육 과정에 제시된 창작 내용을 기반으로 음악 교사들이 단기간에 습득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창작 학습지도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 4. 선행 연구의 고찰

본 연구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다양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 이전에도 창작학습교수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양옥(2001)<sup>43</sup>의 논문은 시에서 나타난 대조와 반복을 이용하여 시의 운율을 사용한 것을 발판 삼아 학습지도안을 연구하였다. 방미영(2003)<sup>44</sup>의 논문에서는 동시에서 나타난 언어의 운율적 특징을 적용하여 리듬과 가락선을 쉽게 발견 할 수 있었다. 동시를 중심으로 제1단계는 리듬과 가락의 창작을 중심으로 한 가락 짓기 실습이며, 2단계는 리듬 및 가락 창작의 썸여림, 빠르기, 화음의 창작까지 확장하여 가락 짓기를 한 실습으로 창작수업을 진행하였다. 김명희(2008)<sup>45</sup>의 논문은 언어리듬을 통한 리듬학습과 가락 짓기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들 연구는 운율과 리듬의 특징을 화성과 연결하여 음악의 심미적 표현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음악 창작 교육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은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윤(2004)<sup>46</sup>은 그의 논문에서 음악과 수업실태 만족도 조사에서 학교 수업에서는 가창과 이론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직에 있는 음악 교사들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활동영역과 리듬, 가락, 화성, 형식, 빠르기, 썸여림, 음색의 이해영역으로 나누어진 이 모든 활동이 통합교육과 더불어 포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지숙(2005)<sup>47</sup>의 논문은 지적인 이해, 정보적인 차원의 지식 전달, 입시를 위한 연주 지향의 기능 연마에 치중해 온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심미적 창작의 ‘분석’에서 필요한 개념을 크게, 리듬, 선율, 화성 형식으로 제시하였으며 ‘작곡하기’는 실제 ‘연주

---

<sup>43</sup> 이양옥(2001). “시의 음악적 요소를 활용한 가락 창작 지도 방안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sup>44</sup> 방미영(2003). “동시를 중심으로 한 가락 짓기 지도 방안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sup>45</sup> 김명희(2008). “동시 속 언어 리듬을 이용한 리듬 학습과 가락 짓기 지도 방안 연구 -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sup>46</sup> 이윤(2004).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과 수업실태 만족도 조사 연구”, 碩士學位論文,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sup>47</sup> 신지숙(2005). “심미적 음악교육의 이론적 고찰 - Bennett Reimer의 음악교육철학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하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윤과 신지숙의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한이 있으며, 음악은 창작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작품을 연주하여 심미적 반응을 얻기 위해 단기간에 화성적 결과물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정(2005)<sup>48</sup>의 논문에서는 국내 음악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창작 활동 비중이 낮고 흥미 유발을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학습 목표 평가가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창작 영역의 체계적인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교과서 구성에 창작 영역을 높이는 방안으로 창작을 하나의 활동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 제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음악 교과서 중심의 창작 교육에 부가하여 다양한 처치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선영(2006)<sup>49</sup>의 논문은 음악 교사들을 대상으로 창작 수업 현황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창작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간 부족과 학생들의 관심 부족이 가장 컸다. 창작 수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식 변화가 요구 되며, 체계적인 교재 개발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병우(2009)<sup>50</sup>의 논문에서는 인지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 가창과, 감상만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 문제라고 하였으며, 현재 특정교과에만 편중되어 강화 운영되고 있는 교과별 연수를 음악교과까지 확대하여 교사의 교수능력을 배양시켜야 하고, 창의적인 교수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황지영(2008)<sup>51</sup>은 그의 논문에서 가락 짓기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려면 기보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서미숙(2004)<sup>52</sup>의 연구에서도 교과서 내에 창작에 대한 활동에 대한 구체성이 미비하고, 음의 고저와 시가에 대한 기보력이 창작의 장애물임을 지적하며, 85%의 학생이 어떤 음을 넣어야 할지 막막해 한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음악을

---

<sup>48</sup> 이유정(2005). "음악수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선율 창작지도에 관한 연구 - 중학교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sup>49</sup> 박선영(2006), 전게서..

<sup>50</sup> 최병우(2008). "음악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sup>51</sup> 황지영(2008).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 창작영역의 효율적 지도방안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sup>52</sup> 서미숙(2004). "나선형 교육과정의 표현방식을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이 중학생의 작곡활동에 미치는 효과 - 중학교1학년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공주대학교 대학원.

정확하게 기보를 유지하는 능력은 향상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음악 창작 활동이 음악의 본질, 작용, 심미적 특질을 경험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음악 교과 내에서도 창작 비중 활동이 낮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창작 수업 교안 작성의 시도가 있으나 대부분의 교안들이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은 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 III.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 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는 작곡활동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는 작곡활동의 사전, 사후 검사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는 가락진행 평가 항목에서 사후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는 화성의 시작과 마침 평가 항목에서 사후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는 음표 쉼표의 기보력 평가 항목에서 사후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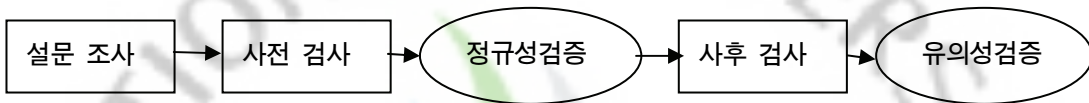
4.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는 기호 기보력 평가 항목에서 사후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 <그림 5>와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설문 조사와 함께 사전 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정규성 검증과 함께 실험 분반을 하였다.

그림 5. 연구 진행 과정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한 후 실험집단에는 선율보 교육과정의 표현방식을 적용한 창작학습자료를 적용하였고, 비교집단에는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창작 내용을 각각 3차시로 구성하여 투입하였다.

이후 사전 검사와 같은 평가지와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검사를 한 후, 사전 검사와 비교하여 음악 창작 능력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J중학교 1학년 4개 반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집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선택된 표본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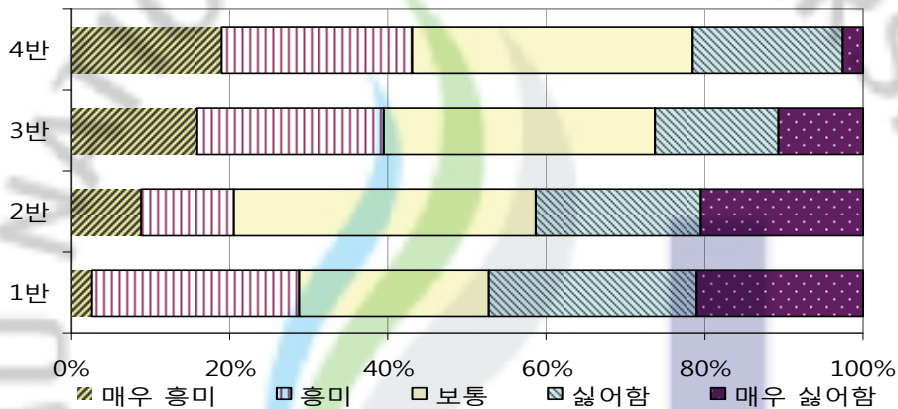
표 3. 연구 대상 인원 및 처치 방식

반	인원	처치
실험집단	2개반	선율보를 적용한 창작 학습방법
비교집단	2개반	교과서에 제시된 일반적인 창작 학습방법

### 3. 사전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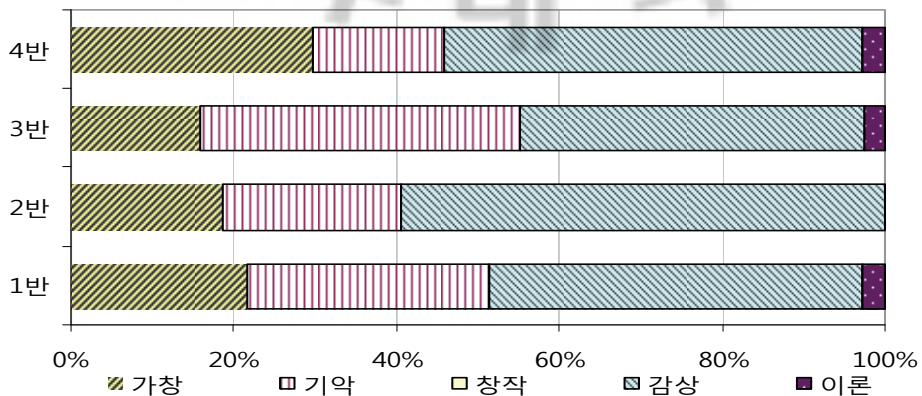
본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부록I】에 수록한 총 6개 문항에 대해 실시하였다. 음악 교과에 대한 흥미도 조사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대체로 흥미도는 평균 정도로 나타났으나 학급에 따라 편차가 심했다. 특히, 1반과 2반의 흥미도는 3반과 4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6. 음악 교과에 대한 흥미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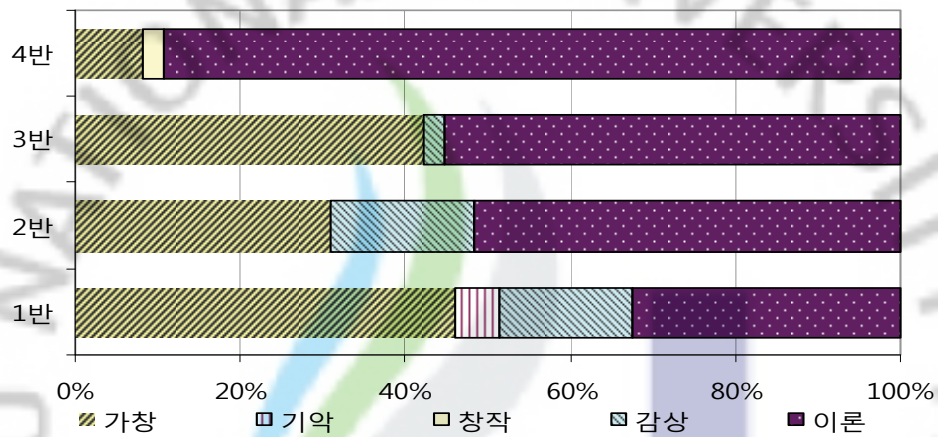
음악 교과 영역에서 주로 선호 분야는 <그림 7>과 같다. 대체로 감상, 기악, 가창 순이었으나 창작이라는 응답은 아예 없었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창작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가 매우 낮다는 것과 같다.

그림 7. 음악 교과에 대한 선호 분야 조사



음악 교과 수업에서 주로 배운 영역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주로 가창과 이론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내 음악 교육에서 창작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론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음악 교과의 흥미도가 낮은 비율이 높았던 1반과 2반에서 가창 및 감상 교육을 주로 받았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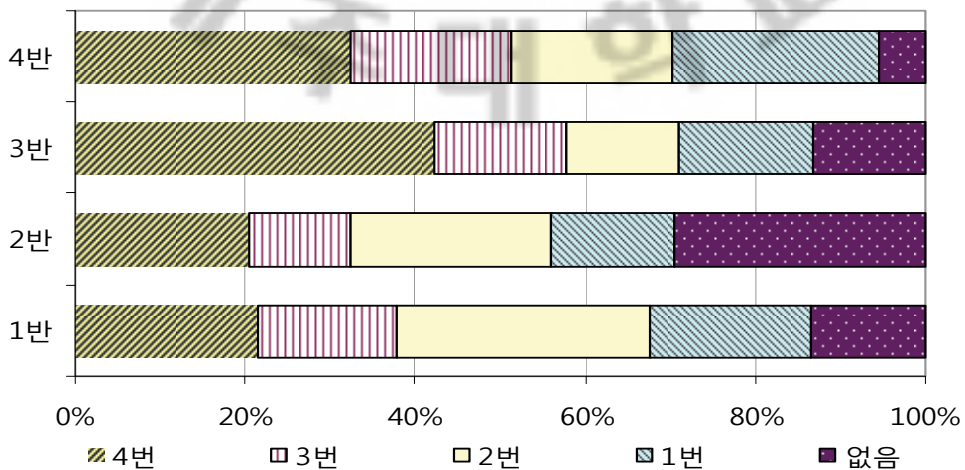
그림 8. 음악 교과에서 주로 받은 교육 영역



이는 감상과 가창이 수동적인 활동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이론 영역을 할 때보다 수업 참여 흥미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학교 입학 전, 음악 창작 수업 횟수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 9>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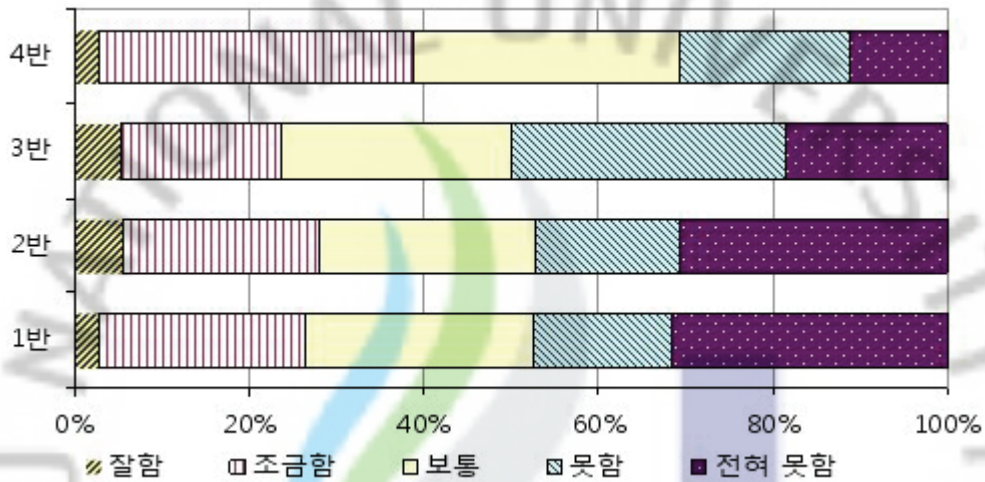
그림 9. 음악 교과에서 창작 수업 횟수



이 질문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창작수업을 2회 이상은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반과 2반이 타 반에 비해 횟수가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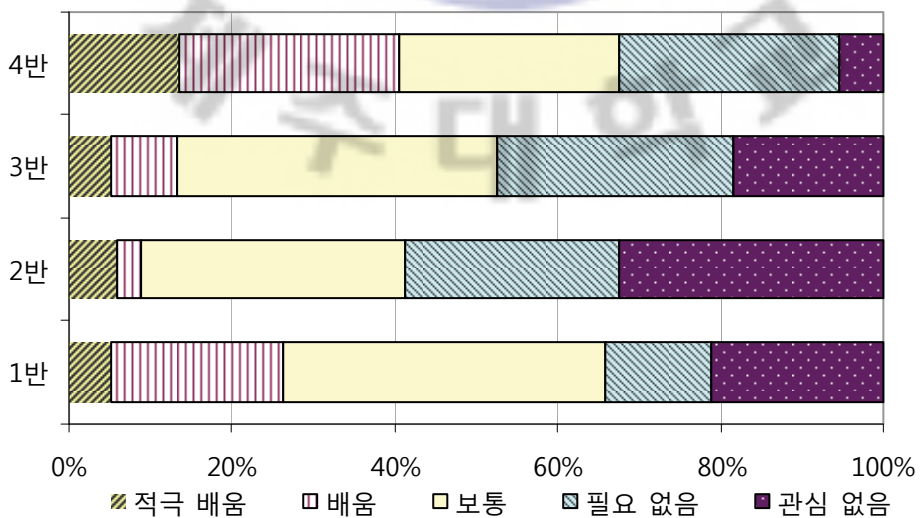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작곡 실력에 대해 대다수가 낮게 평가했으며 학급간의 편차가 심했으며, 역시 1반과 2반의 경우 전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림 10. 자신의 음악 작곡 실력에 대한 평가



<그림 11>에서는 음악 창작 수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학급에 따라 편차가 심했으나 대부분 배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 음악 창작 수업에 참여 태도



설문 결과에 따르면 4개반 중 대개 1반과 2반이 음악 교과 흥미도와 창작 수업 횟수, 그리고 수업에 대한 태도가 낮았다. 본 설문 조사는 학급 구성원에 따라 수업에 임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실험반과 비교반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 4. 사전 검사

사전 검사는 연구 대상이 중학교 창작 수업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국민학교 6학년 수준의 창작 실력을 기반으로 【부록I】의 검사지와 같이 가사를 주고 한 도막 형식의 곡을 써보도록 하였다. 사전 검사의 평가 방식은 일관성을 위해 사후 검사에서 사용한 <표 11>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연구 대상 각 반의 평균 점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대상의 사전 검사 결과

	적합성(만점)		기보력(만점)		평균 점수 (40점만점)
	가락진행(10점)	시작마침(10점)	음표기보(10점)	기호기보(10점)	
1반(41명)	4,158	4,211	5,421	4,895	18,684
2반(40명)	3,730	4,000	4,216	4,973	16,919
3반(40명)	4,432	5,568	5,838	5,568	21,405
4반(40명)	4,595	4,270	5,784	5,946	20,595

앞서 조사한 설문 조사와 사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표 5>와 같이 1반과 4반을 실험반으로 2반과 3반을 비교반으로 나누었다.

표 5. 실험반 및 비교반 연구 대상

반	인원	처치	비고
실험반	75명	화성 기반 창작 교육 방식	1, 4반
비교반	74명	교과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창작 방법	2, 3반



두 비교 집단이 모집단에서 정규적으로 유사하다는 확인하기 위해, 사전 검사에 대해 등분산(F)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표본 모두 모집단에서 적정하게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두 변수에 대해서 F 검증을 시행해서 F 비가 1에 가까울수록 분산이 잘 되어 있으며  $p(F=f) > 0.05$  이면 각각의 변수의 분산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등분산을 가정하고 평균의 유의도를 알아보는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P(T \leq t) < 0.05$  이면 각 변수의 평균값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두 집단은 동일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 집단으로서 동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전 검사의 통계적 검증 결과는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 사전 검사 차이 검증 결과

	평균 (분산)		F비	P(F <=f)	P(T <=t)
	실험반	비교반			
가락의 진행	4.37(5.04)	4.08(5.19)	0.970	0.449	0.214
시작과 마침	4.24(6.13)	4.78(8.41)	0.728	0.088	0.110
음표의 기보	5.60(11.35)	5.02(9.99)	1.135	0.294	0.143
기호의 기보	5.41(5.92)	5.27(3.46)	1.711	0.011*	0.343**
총점	19.639(4.70)	19.161(5.38)	1.349	0.322	0.180

각 항목별 총점에 대한 실험반 평균이 19.639, 분산이 4.70로 나타났음에 비하여, 비교집단은 평균이 19.161, 분산이 5.38로 나타나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평균점수가 0.439점 더 높게 나타났으나, 검증 결과  $P(T \leq t)$  값이 0.180으로 0.05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평가 항목별 결과 역시  $P(T \leq t)$  값이 0.180으로 0.05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호의 기보 항목의 경우 F 검증 결과 등분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분산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P(T \leq t) > 0.05$  이므로 여전히 평균값은 차이가 없음으로써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V. 연구 도구

### 1. 처치 도구 개발

본 연구 대상인 실험 집단에 화성 기반 선율보를 이용한 창작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처치 도구를 개발하였다.

#### 1) J. S. 브루너(J.S. Bruner)의 표현 단계 적용

J. S. 브루너(J.S. Bruner)는 한 교과의 기본개념이나 원리를 발달단계에 맞게 번역하는 원리로서 지식구조의 작동적 표현(일련의 동작으로 나타낸 것), 영상적 표현(영상이나 도해로 나타낸 것), 상징적 표현(상징적 또는 논리적 명제로 나타낸 것)의 세 가지 표현방식을 제안하였다.<sup>53</sup> 서미숙(2004)의 논문에서는 이 표현방식을 활용하여 <그림 12>와 같이 3단계의 창작 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sup>54</sup>

그림 12. J. S. 브루너(J.S. Bruner)의 3단계 음악적 표현 형식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를 응용하여 작동적 표현으로 선율선 그리기, 영상적 표현으로 선율보 그리기, 상징적 표현으로 악보 그리기의 3단계를 도출하였다.

특히, 칼 오르프(Carl Orff)의 오르프-슐베르크(Orff-Schulwerk) 교수법 첫번째 단계인 ‘모방’ 기법을 활용하여 처치 도구의 예제곡으로 ‘똑같아요’를 선택하였다. 가장 친숙한 선율을 가지고 변형시키고 변화를 줌으로써 작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며 창작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sup>53</sup> 권덕원·석문주·최은식·함희주(2007). 전계서, pp. 249-255.

<sup>54</sup> 서미숙(2004). 전계서 p. 26.

## 2) 화성 기반 선율보 개발 단계

작곡이라는 분야는 음악의 3요소인 선율, 리듬, 화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복합적인 예술행위이다. 음악을 잘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 3가지의 복합적인 시도를 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선율보는 선율을 선으로, 리듬은 면으로, 화성은 로마 숫자 기호로 표시하여 각각의 분야를 따로 떼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율보는 아주 기초적인 작곡 단계를 위한 작곡 도구라 할 수 있다.

### (1) 선율선을 그리게 한다.

우선 학생 자신이 가사를 읽으며 느끼는 고저를 선율선으로 표시하게 한다. 예제곡인 ‘똑같아요’의 경우 선율선을 표시하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화성 기반 선율보의 변형 방식

#### (a) 원곡의 선율선

선율												
가사	무	엇	이	무	엇	이	똑	같	을	까		
화음	I			I			IV			I		

#### (b) 변형된 선율선

선율												
가사	무	엇	이	무	엇	이	똑	같	을	까		
화음	I			I			IV			I		

학생들은 가사의 운율과 느낌을 음미하여 학생본인의 감성으로 다양한 선율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심미적 음악 창작을 향한 첫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시작 단계에서의 화성은 예제곡의 화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화성을 지정한다.**

학생들이 창작을 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음’을 넣어야 할지 잘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음’이라는 것을 크게 보아 화음에 속하는 하나의 음으로 해석하며 시작단계에서는 선율보에 마디당 하나의 화성을 지정한다.

오르프의 노래 부르기 지도방식은 코다이와 같이 처음에 소개하는 음정을 솔-미(sol-mi)로 시작하여 그 다음에 라, 레, 도(la, re, do)가, 마지막으로 파(fa)와 시(si)가 첨부된다.<sup>55</sup>

가창 시 처음 소개되는 음의 수가 2개에서 점점 많아지듯이 선율보도 이런 방법을 응용하여 처음 작곡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7개의 나열된 음보다 3개의 화성음(I, IV, V)안에서 선율을 선택하게 한다. 분산 화음적 도약선율이 나타나는 진행이 되지만 훨씬 쉽게 음악적인 선율을 만들 수 있다. 일단 화성음만으로 작곡이 익숙해지면 비화성음을 첨가하는 작곡으로 단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선율보에서 사용하는 음은 주요 3화음의 화성음 3가지로 기본음을 선택하였다. 즉, I도의 경우 도-미-솔-도를 제시한다. <그림 14>는 이러한 선율보의 기본 모양을 도식화 하였다.

그림 14. 선율보의 화성 선택 방식과 구성음의 위치 변화

	1	2	3		1	2	3		1	2	3		1	2	3
도				도				레				도			
라				솔				시				솔			
파				미				솔				미			
도				도				레				도			
	첫 가 락				두 작 이				똑 같 아				요		
	IV				I				V				I		

선율보의 세로 영역은 선택한 기본 화성과 기본음을 토대로 음과 음역을 지정해 준다. 각 화음의 구성음을 나열해주는 방법은 아래에서 위로 화음을 쌓아가는 방법인데 일반적인 차례인 근음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노래하기 편한 음역을 기준으로 재배치되었다.

<sup>55</sup> 서영화·조아라(2004). 전계서, p. 109.

**(3) 기본 리듬을 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율보의 가로는 박자를 나타내며 박자는 1간을 1박으로 정한다. 3/4박자일 때는 3간으로 나누어 쓰며 위에 각 박자를 숫자로 표시한다.

그림 15. 선율선과 화음 기반 선택음을 접목한 창작용 선율보

	1	2	3		1	2	3		1	2	3		1	2	3
도				도				도				도			
솔				솔				라				솔			
미				미				파				미			
도				도				도				도			
	무	엇	이		무	엇	이		뚝	갈	을		까		
	C : I				-				IV				I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 15>와 같은 선율보를 기반으로 각 가사에 해당하는 음을 바로 악보에 기보할 수 있게 된다.

**3) 음악 창작 수업 지도안**

비교반에서는 일반적인 음악 창작 수업에 준한 <표 7>과 같은 차시별 창작 학습을 실시하였다.

표 7. 비교반의 음악 창작 수업안

차시	창작 학습 내용
1차시	주요 3화음 알기, 가사에 맞는 가락 붙여 표현하기
2차시	기보법 알기, 기본 화성 진행 이해
3차시	기보법, 화음, 화성진행 복습 및 평가

이와 대비하여 실험반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할 창작 수업 지도안은 <표 8>과 같이 작성하였다.

표 8. 실험반의 음악 창작 수업안

수업주제	한도막 형식 작곡하기	대상	중등1학년
목표	<p>가사를 읽고 선율선을 그릴 수 있다.</p> <p>주어진 선율선을 음의 고저와 리듬에 맞게 선율보에 옮길 수 있다.</p> <p>선율보를 오선보에 기보할 수 있다.</p> <p>주어진 선율을 리코더로 연주하거나 노래로 불러 발표할 수 있다.</p>		
교육과정	교육과정 : 음악 만들기 / 이해하기 : 음악의 요소 / 생활화하기 : 생활 속의 체험		
주요 활동	<p>가사를 읽고 음의 고저에 맞게 선율선을 그린다.</p> <p>선율보의 1간이 의미하는 박자와 화성음을 익힌다.</p> <p>선율보에 음의 장단에 맞게 가사를 넣어 본다.</p> <p>선율선을 선율보에 맞게 그려본다. 오선보의 기보법을 익힌다.</p> <p>선율보를 오선보에 정확히 기보한다.</p> <p>자신이 만든 선율을 리코더로 불러본 후 수정하여 완성된 선율을 불러 본다.</p> <p>발표할 학생을 선정하여 자신의 곡을 OHP에 그린 후 다같이 불러본다.</p> <p>교사의 주도하에 틀린 기보법과 선율진행의 아쉬운 부분을 함께 수정한다.</p>		
교실환경	장소 : 음악실, 교구 및 교재 : 피아노, OHP		
차시별 지도계획			
차시	주요내용	주요활동	
사전준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교과서 창작관련 탐색</li> <li>2. 사전 학습 능력 및 인식 조사</li> <li>3. 학습계획 수립</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내용 선택</li> <li>- 기초 평가지 및 설문조사</li> <li>- 단계별 학습지 만들기</li> </ul>	
1차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업 주제와 목표, 평가 안내</li> <li>2. 주요 3화음 알기</li> <li>3. 가사에 맞는 선율선 표현</li> <li>4. 선율보 용법 익히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목표의 구체적 내용, 평가기준 소개</li> <li>- 주요 3화음을 이루는 구성음 소개</li> <li>- 가사를 읽고 고저에 맞게 선율선 그리기</li> <li>- 선율보 1간의 쓰임 소개</li> </ul>	
2차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보법 알기</li> <li>2. 기본 화성 진행 이해</li> <li>3. 선율보 작성 후 오선보에 기보</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표의 기보와 박자표, 겹세로줄 소개</li> <li>- 시작 화음과 반마침, 바른마침의 방법 소개</li> <li>- 선율보를 오선보에 바르게 기보하기</li> </ul>	
3차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율보 용법 복습</li> <li>2. 기보법, 화음, 화성진행 복습</li> <li>3. 평가</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율보의 용법 복습하기</li> <li>- 기보법, 화음, 화성진행 복습하기</li> <li>- 평가지에 곡 만들기</li> </ul>	

##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실험반과 비교반의 사전 검사는 중학교 창작 수업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창작 실력을 기반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에서 개발한 「평가방법개선을 위한 중학교 음악 수행평가 적용자료」의 성취기준, 평가기준, 채점표를 활용하여 평가지와 채점표를 개발하였다.<sup>56</sup>

사후 검사는 실험반 및 비교반에서 각각 2차시의 창작 교수학습 활동을 실시한 직후 【부록1】의 사전 검사와 같은 형식의 사후 검사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참고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은 <표 9>, <표 10>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험반 및 비교반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 이용한 평가표는 <표 11>과 같다. 본 평가표는 7차 교육과정 음악 창작 평가 기준을 따랐으나, 그 항목 중 독창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빠져 있다. 이는 본 수업 교안이 3차시라는 한정된 수업 시간 배정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개념인 선율보의 개념을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아울러 본 연구의 주 목적인 화성음을 사용한 작곡 활동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수법에 집중했기 때문에 동기 및 절정(Climax)과 같은 독창성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sup>56</sup>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전게서, pp. 137-138.

표 9. 중학교 1학년 음악 창작 성취 기준

교육과정		성취기준
영역	내용	
3. 창작	301.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한다. 302. 배운 곡을 변화시킨다. 303. 가사에 어울리는 가락을 만든다. 304.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는다. 305. 곡에 어울리는 반주를 만든다. 306. 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을 만든다. 307. 만든 곡을 발표한다. 308.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	3-1. 주어진 조건에 맞는 곡을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3-2. 만든 음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흥연주, 음색, 어울리는 화음, 신체표현 등) 3-3.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으로 평할 수 있다.

표 10. 중학교 1학년 음악 창작 평가 기준

성취기준	평가요소	평가기준
3-1. 주어진 조건에 맞는 곡을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적합성	리듬과 음정을 정확히 표현한다.
	독창성	만든 곡이 독창적이면서 참신하다.
	기보력	주어진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기보한다.
	태도	진지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3-2. 만든 음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흥연주, 음색, 어울리는 화음, 신체표현 등)	표현력	만든 곡을 이해하고 곡의 분위기를 살려 감정을 전달한다.
	태도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3-3.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으로 평할 수 있다.	적합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서술한다.
	논리성	발표 내용이 논리적이다
	발표력	전달하려는 내용을 속도, 발음, 성량 등을 조절하여 전달한다.
	태도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평가에 임한다.



표 11. 연구 대상에 대한 평가표

평가요소		평가기준	점수
적합성 20점	가락의 진행	가락의 진행이 8마디 모두 우수하다.	10
		가락의 진행이 6-7마디 우수하다.	8
		가락의 진행이 4-5마디 우수하다.	6
		가락의 진행이 2-3마디 우수하다.	4
		가락의 진행이 1마디 우수하다.	2
	화성의 시작과 마침	으뜸화음 시작, 반마침과 완전 바른마침을 모두 사용하였다.	10
		으뜸화음 시작, 완전 바른마침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8
		으뜸화음 시작, 반마침과 완전 바른마침 중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6
		으뜸화음 시작, 반마침과 완전 바른마침 중 한 가지를 사용하였다.	4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2
기보력 20점	음표와 셈표의 기보	음표와 셈표가 8마디 모두 바르다	10
		음표와 셈표가 1-2번 오류가 있다.	8
		음표와 셈표가 기보에 3-4번 오류가 있다.	6
		음표와 셈표가 기보에 5-6번 오류가 있다.	4
		음표와 셈표가 기보에 7번 이상 오류가 있다.	2
	악상 기 호의 기 보	박자표, 끝세로줄, 가사유무, 가사와 리듬의 연결의 기보가 바르다.	10
		박자표, 끝세로줄, 가사유무, 가사와 리듬의 연결의 기보에 1번 오류 가 있다	8
		박자표, 끝세로줄, 가사유무, 가사와 리듬의 연결의 기보에 2번 오류 가 있다.	6
		박자표, 끝세로줄, 가사유무, 가사와 리듬의 연결의 기보에 3번 오류 가 있다	4
		박자표, 끝세로줄, 가사유무, 가사와 리듬의 연결의 기보에 4번 이상 오류가 있다.	2

### 3. 평가 및 검증 방법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가는 창작 학습을 지도한 후, 전문적인 음악 교육 자격을 가진 두 교사가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관찰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채점 기준에 대하여 사전 연수를 한 후 실시한 후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채점표의 평가 기준은 항목별로 세분화 하여 객관적인 지표로써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작 활동 점수는 적합성 20점과 기보력 20점 총 40점 만점으로 두 집단의 검사 결과에 따라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집단간 유의성 검증은 SPSS 12.0 Windows 한글판을 이용하였다.

### 4. 관찰자간의 신뢰도

본 연구의 객관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검사, 평가에 따라서 관찰자 2명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표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전 검사 결과 적합성이 .95, 기보력이 .94로 사전검사의 관찰자간 신뢰도(r)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사 결과 적합성이 .94, 독창성이 .96으로 사후검사의 관찰자간 신뢰도(r)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2. 평가 관찰자간의 신뢰도 결과

검사 내용	적합성	기보력
사전검사	.95	.94
사후검사	.94	.96

따라서 사전검사, 사후검사의 관찰자간 신뢰도를 볼 때 본 연구의 관찰 점수가 비교적 객관적임을 알 수 있다.

## VI. 연구의 결과 및 분석

화성기반 선율보의 표현방식을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간에는 작곡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득점의 평균, 분산 및 t값을 산출하였다. 【부록III】에는 사전 및 사후 평가지 일부 샘플을 별첨하였다.

### 1. 종합 결과

본 연구에서 화성 기반 선율보를 통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간에는 작곡활동의 사후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임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에 대해 <표 11> 평가 지표에 따른 사후 평가 결과는 <표 13>과 같다. 실험반인 1반과 4반의 평균 점수가 비교반인 2반과 3반 보다 높았다. 또한, 사전 검사와 비교했을 때 실험반 중 1반의 평균 점수 상승이 두드러진다.

표 13. 연구 대상의 사후 검사 결과

	적합성(만점)		기보력(만점)		평균 점수 (40점만점)
	가락진행(10)	시작마침(10)	음표기보(10)	기호기보(10)	
1반(41명)	7.579	8.053	8.105	7.579	31.316
2반(40명)	6.811	6.297	7.568	6.865	27.541
3반(40명)	6.973	7.514	7.568	8.541	30.595
4반(40명)	7.946	7.838	7.405	6.865	30.054

또한, 실험반과 비교반의 각 반별 사후 평가 결과의 유의미한지의 통계적 검증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사후 검사 차이 검증 결과

	평균 (분산)		T	P(T<=t)
	실험반	비교반		
가락의 진행	7.76(2.80)	6.89(3.63)	2.954	0.001
시작과 마침	7.95(3.67)	6.90(6.91)	2.765	0.003
음표의 기보	7.76(6.37)	7.75(6.13)	0.007	0.496
기호의 기보	7.23(2.25)	7.70(3.36)	-1.732	0.042(단측) 0.082(양측)
<b>총점</b>	<b>31.22(48.96)</b>	<b>29.31(60.40)</b>	<b>1.581</b>	<b>0.0579</b>

사후검사 결과, 적합성 중 가락의 진행 항목은 실험반이 평균 7.76이며 분산이 2.80이었음에 비하여,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은 평균이 6.89, 분산이 3.63로 나타나 실험집단의 평균점수가 비교집단보다 0.87점 더 높게 나타났으며, P(T<=t) 값이 0.001로 0.01보다 작으므로 이 차이는 검증 결과 99%의 신뢰도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적합성 중 화성의 시작과 마침 항목은 실험반이 평균 7.95이며 분산이 3.67이었음에 비하여,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은 평균이 6.90, 분산이 6.91로 나타나 실험집단의 평균점수가 비교집단보다 1.05점 더 높게 나타났으며, P(T<=t) 값이 0.003로 0.01보다 작으므로 이 차이는 검증 결과 99%의 신뢰도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기보력 중 음표 및 쉼표의 기보 항목은 실험반이 평균 7.76이며 분산이 6.37이었음에 비하여,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은 평균이 7.75, 분산이 6.13으로 나타나 실험집단의 평균점수가 비교집단보다 0.01점 더 높게 나타났으며, P(T<=t) 값이 0.496로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기보력 중 기호의 기보 항목은 실험반이 평균 7.23이며 분산이 2.25이었음에 비하여,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은 평균이 7.70, 분산이 3.36으로 나타나 실험집단의 평균점수가 비교집단보다 오히려 0.47점 더 낮게 나타났으며,

$P(T \leq t)$  값이 0.042로 0.05보다 작으므로 이 차이는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다. 다만, 변수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P(T \leq t)$  값은 0.082로서 평균값이 다르다고 할 수 없어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사후검사의 총점은 실험반이 평균 31.22, 분산은 48.96이었음에 비하여,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은 평균이 29.31, 분산이 60.40으로 나타나 실험 집단의 평균점수가 1.91점 더 높게 나타났으며,  $P(T \leq t)$  값이 0.0579로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95% 신뢰 수준인 0.05에 가까우므로 유의미한 결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실험반의 창작 활동은 비교반에 비해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적합성에서 가락의 진행과 화성의 시작과 마침 항목에서는 점수가 의의 있게 더 높았고, 기보력에 서 음표/쉼표의 기보, 기호의 기보 항목 등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2. 반별 분석

본 연구 설문 조사와 사전 검사에 따르면 실험반과 비교반을 나눌 때, 각 반별로 학습흥미도와 <표 4>의 검사 결과 점수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실험반에 속한 1반의 경우, 음악 교과에 대한 흥미 정도 및 이론 수업 내용이 타 반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따라서, 실험반에 포함된 1반과 비교반인 2반과 3반의 사후 검사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본 실험이 흥미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5>는 1반(실험반)과 2반(비교반)의 사후 검사 차이를 비교하였다. 두 반은 사전 검사에서 평균 점수가 비슷하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표 15. 실험반(1반)과 비교반(2반)의 사후 검사 차이 검증 결과

	평균 (분산)		T	P(T ≤ t)
	실험반(1반)	비교반(2반)		
가락의 진행	7.57(2.62)	6.81(4.54)	1.759	0.041
시작과 마침	8.05(2.91)	6.29(6.27)	3.555	0.003
음표의 기보	8.10(5.82)	7.56(6.69)	0.930	0.177
기호의 기보	7.57(1.54)	6.86(2.54)	2.159	0.017

두 반의 사후 검사 결과 중, 적합성 평가 항목인 가락의 진행 및 시작과 마침, 기호의 기보 항목에서 각각  $P(T \leq t)$  값이 0.041, 0.003, 0.017로서 그 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 흥미도와 사전 검사 점수가 유사한 반을 비교했을 때, 실험반의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높으며, 이는 화성 기반의 선율보를 통한 학습이 짧은 수업 차시로 실험했음에도 학생들에게 원하는 가락의 정확한 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심미적인 음악 작곡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6>은 1반(실험반)과 3반(비교반)의 사후 검사 차이를 비교하였다. 두 반은 사전 검사에서 1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16. 실험반(1반)과 비교반(3반)의 사후 검사 차이 검증 결과

	평균 (분산)		T	P(T ≤ t)
	실험반(1반)	비교반(3반)		
가락의 진행	7.57(2.62)	6.97(2.80)	1.592	<b>0.057</b>
시작과 마침	8.05(2.91)	7.51(6.97)	1.052	<b>0.148</b>
음표의 기보	8.10(5.82)	7.94(5.66)	0.930	<b>0.177</b>
기호의 기보	<b>7.57(1.54)</b>	<b>8.54(2.81)</b>	<b>-2.825</b>	<b>0.003</b>

두 반의 사후 검사 결과의 모든 항목은  $P(T \leq t)$  값이 0.05보다 크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기호의 기보 항목은 비교반이 실험반 보다 오히려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가락의 진행 항목의 경우 0.05에 가까운 값을 기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 흥미도와 사전 검사 점수가 월등히 차이 나는 두 반을 비교했을 때, 평균 점수가 비슷하였다. 다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적합성 중 가락의 진행 항목은 유의미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이는 화성 기반의 선율보를 통한 학습이 짧은 수업 차시로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등반에 유사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3. 결과 분석

본 연구는 화성 기반 선율보 표현방식을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 방법이 중학생의 작곡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서 “화성 기반 선율보 표현방식을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 간에는 작곡활동의 사후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는 없으나 유의한 값( $p < 0.0579$ )에 가깝게 나타났다.

“화성 기반 선율보 표현방식을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 간에는 작곡활동의 적합성 중 가락의 진행 항목은 작곡활동의 사후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연구 결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화성 기반 선율보 표현방식을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 간에는 작곡활동의 적합성 중 화성의 시작과 마침 항목은 작곡활동의 사후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2>는 결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3$ ).

“화성 기반 선율보 표현방식을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간에는 기보력에서 작곡활동의 사전, 사후 검사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연구 결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496$ ).

“화성 기반 선율보를 표현방식을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 간에는 작곡활동의 중 음표 쉼표의 기보에서 사후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4>는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82$ ).

또한, 학습 흥미도와 사전 검사 점수가 유사한 두 반을 비교했을 때, 실험반의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화성 기반의 선율보를 통한 학습이 짧은 수업 차시로 실험했음에도 음악 작곡의 적합성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습 흥미도와 사전 검사 점수가 월등히 차이 나는 두 반을 비교했을 때도 평균 점수가 비슷하였다. 이는 화성 기반의 선율보를 통한 학습이 짧은 수업 차시로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등반에 유사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VII. 논의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이 중학생의 작곡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간에는 작곡활동의 사전, 사후 검사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는 가락진행에서 사후검사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는 화성의 시작과 마침 항목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는 음표 쉼표의 기보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 집단 간에는 기호 기보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 방법이 중학생의 작곡활동에서 적합성 중 가락진행과 화성의 시작과 마침을 신장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기보력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기보력의 차이에 대한 변별력이 유지되지 못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으나 신뢰 수준에 따라 유의미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학습 흥미도와 사전 검사 점수가 유사한 두 반을 비교한 결과, 실험반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이는 화성 기반의 선율보를 통한 학습이 짧은 수업 차시에도 음악 작곡 능력 중 적합성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내 소재의 J중학교 4개 반을 설문 조사와 사전 검사를 토대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1차시에 45분씩 총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작곡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교육부에서 개발한 음악 창작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자체 개발한 사전검사지와 사후검사지 및 채점표를 사용하였으며 사전 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작곡활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동질화 되었으므로 가설의 검증은 두 집단의 검사 결과에 따라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집단간 유의성 검증은 SPSS 12.0 Windows 한글판을 이용하였다.

## 2. 논의

연구 처치 후 사후검사 결과 화성 기반 선율보 표현방식을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이 중학생의 작곡활동의 적합성 중 가락의 진행, 시작과 마침에 의의 있는 효과를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실험반이 적합성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험반의 경우 화성 기반의 선율보를 이용해 선율에 따라 머리 속의 음을 악보에 쉽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비교반은 선율을 악보에 기재하였으나 가락의 진행이나 심미적 결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음악 창작 수업 시간의 제약과 간편한 창작 수업 도구가 부재하여 창작 수업의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흥미도가 떨어졌으나 본 수업 도구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도 높은 성취도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실험반과 비교반 사이에 기보력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보력은 머릿속의 음을 악보에 정확히 표기하는 능력과 음표 및 악보의 기호 등을 틀리지 않게 입력하는 능력으로 나누어 진다. 후자의 기보력은 단순 암기를 통하여 습득될 수 있는 능력이며, 기 작성된 평가표 역시 후자에 치중돼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 결과 두 비교 집단 사이에 기보력에 큰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숙(2004)의 논문에서도 기보력은 단순암기를 통한 적용 가능한 지식에 의한 것이며, 추후 지속력 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sup>57</sup>

---

<sup>57</sup> 서미숙(2004). 전제서, p. 40.

셋째, 본 연구에서 창작 수업 진행 시, 3차시 정도의 짧은 수업 횟수만으로도 본 처치 도구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으나, 음악 창작 교과 과정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었던 독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 덧붙여 동기의 발전, 대조, 변화의 요소를 첨가하며, 곡을 절정(Climax)으로 진행하기 등의 변화를 주기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3. 결론 및 제언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음악 창작수업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결론

첫째,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이 일반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보다 적합성 중 가락의 진행 능력이 높았다.

둘째,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이 일반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보다 적합성 중 화음의 시작과 마침을 적용하는 능력이 높았다.

셋째,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은 기보법 중 음표 쉼표의 기보력에 차이는 없었다.

넷째, 화성 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일반 음악 창작 학습방법을 사용한 비교집단은 기보법 중 기호 기보력에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성기반 선율보를 적용한 창작 학습지는 중학생의 음악 창작 후 적합성에 준하는 실질적 음악 작곡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습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작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감정을 음악의 상징체계로 표현하였다. 또한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리코더로 연주하며, 가사를 붙여 불러 보며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동료들의 작품을 보고 들으면서 심미적 반응을 일으키며 창작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한 지향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 2) 제언

첫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음악 창작 수업은 짧은 시간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화성 기반 선율보와 같은 효과적인 창작학습지가 개발된다면 별도의 창작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교사들도 손쉽게 창작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음악 수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게 운영되는 고등 학년을 위한 효율적인 수업 지도안은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와 서미숙(2004)의 논문에 비추어 보면 기보력의 지속성은 창작 수업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sup>58</sup> 이런 결과로 음악 창작 평가보다는 오히려 이론적 수업의 범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교육 과정에서는 음악 창작에 대한 평가 항목을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악 창작 지도 과정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체계적인 학습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화성 기반 선율보는 작곡의 가장 기초를 시작하기 위한 창작학습지이다. 선율보로 작곡에 대한 성취감을 느낀 후 자신만의 독창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향후에 더욱 활발히 연구 보완되어야 한다.

---

<sup>58</sup> 서미숙(2004). 전개서, p. 41.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권덕원·석문주·최은식·함희주(2007).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 김광휘(1995). 「중등학교의 창작지도」, 서울 : 음악교육연구.
- 김종서(1997).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 교육과학사.
- 방금주(1993). 「음악인을 위한 청각 지도법」, 서울 : 삼호출판사.
- 상창환·조효임·이동남 공저(1997). 「초등음악과 지도법」, 서울 : 삼호출판사.
- 윤영배·정운석(2005). 「오르프 접근법과 악기 앙상블」 (제1집), 서울 : 창지사.
- 이도식(2001). 「노래, 가창 그리고 음악표현」, 서울 :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 이흥수(1992).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_\_\_\_\_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이흥수의 3인 공저(2007). 「중학교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 (주)두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 - 중학교 음악 -」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_\_\_\_\_ (2002).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 학습방법 연구」,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Mursell J.L.(1986). 「음악적 성장을 위한 교육」,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Armstrong T.(1998). 「복합지능과 교육」, 전윤식, 강영심 역,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2. 학술지 논문

- 서영화·조아라(2004). “칼 오르프의 음악교수법을 적용한 중학교 음악 수업안 연구”, 「논문집」, 제25권 제1호, 教科教育研究.
- 석문주(2001). “음악과 창작수업의 교육적 효과”, 「논문집」, 제20권, 한국음악교육학회.
- 오세균(2002). “오르프 학습법에 의한 음악의 지도”, 「논문집」, 제39호, 청주교육대학교.
- 이미혜(1995). “칼 오르프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 지도법에 관한 분석 연구”, 「논문집」, 제18집, 진주전문대학.

### 3. 학위 논문

- 강성순(1997). “동시를 활용한 음악적 즉흥 표현 지도 방안 탐색”,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명희(2008). “동시 속 언어 리듬을 이용한 리듬 학습과 가락 짓기 지도 방안 연구 -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실(2007). “구안된 정간보의 단계적 적용 과정을 통한 창작 지도 방안”, 碩士學位論文,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나옥(2007). “대위적 기법을 활용한 창작수업 연구 -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선영(2006). “중 고등학교 음악교사들을 통해 살펴본 창작교육 실태조사”, 碩士學位論文,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방미영(2003). “동시를 중심으로 한 가락 짓기 지도 방안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경(2000). “자크 달크로즈와 칼 오르프 리듬지도 방법의 비교연구 -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미숙(2004). “나선형 교육과정의 표현방식을 적용한 음악 창작 학습방법이 중학생의 작곡활동에 미치는 효과 - 중학교1학년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공주대학교 대학원.
- 선민정(2003). “음악과 창작학습에 있어서 창작학습지를 활용한 지도방법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지숙(2005). “심미적 음악교육의 이론적 고찰 - Bennett Reimer의 음악교육철학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도식(1980). “가사와 음악적 표현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양옥(2001). “시의 음악적 요소를 활용한 가락 창작 지도 방안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유정(2005). “음악수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선율 창작지도에 관한 연구 - 중학교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경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운(2004).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과 수업실태 만족도 조사 연구”, 碩士學位論文,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주미(2001). “음악교육에서 다중지능이론의 적용 방안 연구 - 창작학습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미(2007). “창작 수업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타악창작과 노래창작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 채희자(2005).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창작영역 분석연구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병우(2008). “음악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지영(2008).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 창작영역의 효율적 지도방안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碩士學位論文,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 홍선혜(2006). "음악수업에서의 효율적인 정간보 기보체계 방안 : 초등학교 과정을 중  
심으로", 碩士學位論文,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4. 사전

- 브리태니커편찬위원회(1993).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 (제12권), 브리태니커·동아  
일보 공동출판.

## Abstract

# The Effect of the Music Creative Teaching applying “Harmonic Melody Sheet” for the First Grade Students on Middle School

Park, Gui-young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Chun-ki)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ect of the teaching method about the music creativity using the new developed "Harmonic Melody Sheet (HM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score, “Jeong-gan-bo” and Orff's educational theory. For 149 male students of the first graded middle school in Jeju, Korea, it was divided an experimental group applying the HMS based class and a comparative group doing a general method based on the result of survey pre-test. Finally it was validated the result of post-test and the result was analyzed.

The experiment was done just 3 times for 50 minutes for confirming the effect despite of a short term class. Instruments to measure the creativity were pre-test papers, post-test papers and which were based on the national musical curriculum and me. According to pre-test, both groups didn'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are homogeneous, so we processed the class and post-test. The result of T-test on post-test is as following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improvement on musical appropriateness of the melody progression.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improvement on musical appropriateness



of the start and end of harmony.

Third, there weren't any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ability musical notes and rest on score between two groups.

Fourth, there weren't any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ability in musical signs on score between two groups.

As a result, the HMS based musical class is effective on improving the ability of music composi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Especially, previous researches pointed that the number of musical creative class was limited on general schools and students lost interests in this class because of the lack of proper teaching tools. Using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e can get highly achievements in spite of short-term classes.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some suggestions are recommended as follows.

First, although this research got effective results on short-time class, the systematic method for teaching must be designed for each grade of middle and high schools.

Second, this research shows the ability of notation is not increased by music creative class but theory class. So, it has better omit the evaluation item of notation in next music curriculum and reinforce these criteria in detail.

Third, the the HSM is the basic learning tool for starting music composition. So the further studies to make phased-in classes must be developed to express ones originality of music after feeling achievements.

## 부록

### 【부록I】

- I-1. 사전 설문지
- I-2. 사전 검사지

### 【부록II】

- II-1. 화성 기반 선율보 1차시 수업 창작 학습지
- II-2. 화성 기반 선율보 2차시 수업 창작 학습지
- II-3. 화성 기반 선율보 3차시 수업 사후 평가지
- II-4. 일반 수업 사후 평가지

### 【부록I】

- III-1. 사전 검사 시험지 샘플
- III-2. 사후 평가지 샘플 - 기존 수업
- III-3. 사후 평가 결과 샘플 - 화성 기반 선율보 수업

## 【 부 록 I 】

### 1. 사전 설문지

안녕하세요? 아래 설문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답해 주시고 조사결과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 음악교과에 대한 흥미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아주 좋아 한다 ② 조금 좋아 한다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싫어 한다 ⑤ 아주 싫어 한다

#### 2. 음악수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 ① 가창 ② 기악 ③ 창작 ④ 감상 ⑤ 이론

#### 3. 음악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가장 많이 가르쳐 주신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가창 ② 기악 ③ 창작 ④ 감상 ⑤ 이론

#### 4. 학교에서 창작 수업을 한 적이 있나요? (초, 중등 포함)

- ① 4번 이상 ② 3번 ③ 2번 ④ 1번 ⑤ 전혀 없다

#### 5. 노래 가사가 주어진다면 8마디의 곡을 작곡할 수 있나요?

- ① 잘 할 수 있다 ② 조금 할 수 있다 ③ 보통이다
- ④ 할 수 없다 ⑤ 전혀 할 수 없다

#### 6. 창작 수업을 한다면 참석할 의사가 있나요?

- ①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 ② 배우고 싶다. ③ 보통이다
- ④ 배우고 싶지 않다 ⑤ 전혀 배우고 싶지 않다

## 2. 사전 검사지

중학교 1학년 반 이름

- 3/4박자로 8마디 작곡하기 -  
(여러분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  
성의껏 작곡하기 바랍니다)

가사 : 산새들 숲속에 모여살고  
우리는 한집에 모여 산다.



## 【 부 록 II 】

### 1. 화성 기반 선율보 1차시 수업 창작 학습지

#### 선 율 선 그 리 기

주요 3화음 - ( I도 화음 : 도미솔 ) ( IV도 화음 : 파라도 ) ( V도 화음 : 솔시레 )

선율	솔			솔			라 라 라			솔		
	미			미								
가사	무	엇	이	무	엇	이	뚝	같	을	까		
화음	I			I			IV			I		

선율	파 파 파			미 미 미			레 레 레			도		
가사	젓	가	락	두	짜	이	뚝	같	아	도	요	
	IV			I			V			I		

#### 선율보에 그리기

	1	2	3		1	2	3		1	2	3		1	2	3
도				도				도				도			
솔				솔				라				솔			
미				미				파				미			
도				도				도				도			

무 엇 이      무 엇 이      뚝 같 을      까  
C : I                      -                      IV                      I

	1	2	3		1	2	3		1	2	3		1	2	3
도				도				레				도			
라				솔				시				솔			
파				미				솔				미			
도				도				레				도			

젓 가 락      두 짜 이      뚝 같 아      요  
IV                      I                      V                      I



2. 화성 기반 선율보 2차시 수업 창작 학습지

선율선 만들기

선율												
가사	무	엇	이	무	엇	이	똑	같	을	까		
화음	I			I			IV			I		

선율												
가사	젓	가	락	두	작	이	똑	같	아	요		
	IV			I			V			I		

선율보에 그리기(같은 선율에 다른 화음으로)

	1	2	3		1	2	3		1	2	3		1	2	3
도															
솔															
미															
도															

무 엇 이 무 엇 이 똑 같 을 까

C : I

	1	2	3		1	2	3		1	2	3		1	2	3

젓 가 락 두 작 이 똑 같 아 요

I



### 선율선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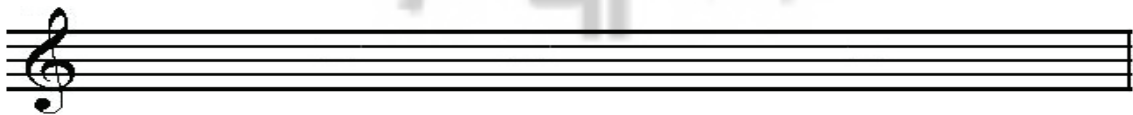
선율				
가사	산	새	들	숲 속 에 모 여 살 고
화음	I			

선율				
가사	우	리	는	한 집 에 모 여 산 다
	I			

### 선율보에 그리기

도															
솔															
미															
도															
	산	새	들	숲	속	에	모	여	살	고					
C:	I														

	우	리	는	한	집	에	모	여	산	다					
	I														





### 3. 화성 기반 선율보 3차시 수업 사후 평가지

\* 다음의 가사를 읽고 한도막형식의 노래를 만드세요.

가사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3/4박자 작곡  
선율선 만들기

선율												
가사	가	을	엔	곡	식	이	익	어	가	네		
화음												

선율												
가사	우	리	의	꿈	들	도	익	어	가	네		
화음												

#### 선율보에 그리기

	1	2	3		1	2	3		1	2	3		1	2	3
도															
솔															
미															
도															

화음 ( I 도) ( 도) ( 도) ( 도)

	1	2	3		1	2	3		1	2	3		1	2	3

( 도) ( 도) ( 도) ( 도)



4. 비교반 수업 사후 평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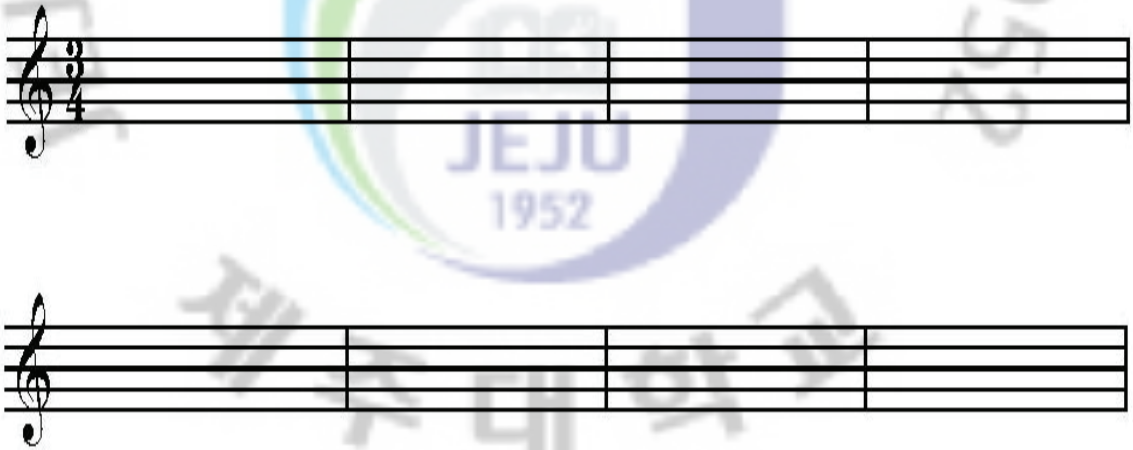
학습평가지

1학년 \_\_\_ 반 이름 \_\_\_\_\_

\* 아래의 가사를 읽고 한도막형식의 노래를 작곡하세요.

가사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박자 - 3/4 박자 사용하기





종 학교 1학년 / 반 이름이

- 3/4박자로 8마디 작곡하기 -

(여러분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  
성의껏 작곡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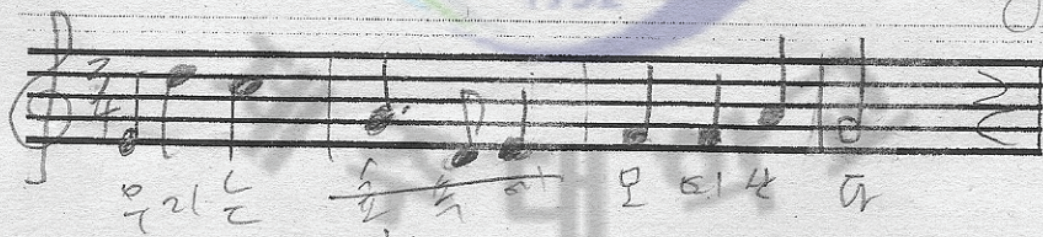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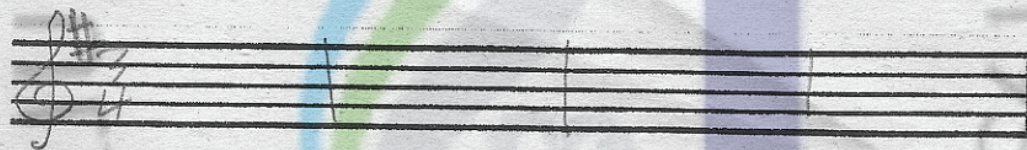
가사 : 산새들 숲속에 모여살고  
우리는 한집에 모여 산다.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a song. The first staff has three measures with lyrics "우리들" (we), "학교에" (at school), and "모여살고" (gather and live). The second staff has three measures with lyrics "우리는" (we are), "열심히" (hardworking), and "공부 한다." (study). There are some corrections and a handwritten "2" in the top right.

중학교 1학년 2반 이름 김서영

- 3/4박자로 8마디 작곡하기 -  
(여러분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  
성의껏 작곡하기 바랍니다)

가사 : 산새들 숲속에 모여살고  
우리는 한집에 모여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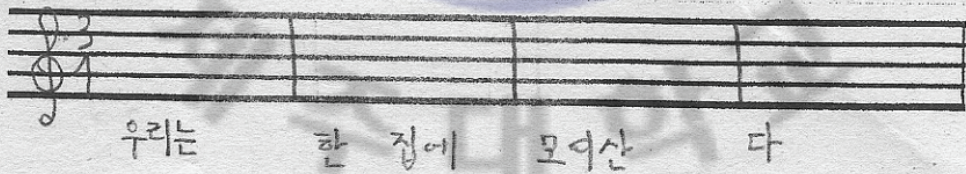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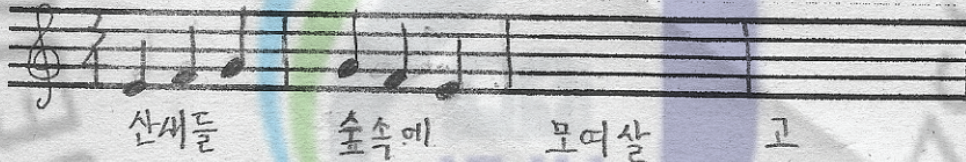


학교 1학년 2 반 이름 오기

- 3/4박자로 8마디 작곡하기 -

(여러분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  
성의껏 작곡하기 바랍니다)

가사 : 산새들 숲속에 모여살고  
우리는 한집에 모여 산다.



학교 1학년 4반 이름 유민

- 3/4박자로 8마디 작곡하기 -

(여러분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  
성의껏 작곡하기 바랍니다)

가사 : 산새들 숲속에 모여살고  
우리는 한집에 모여 산다.



산새들 숲속에 모여살고



우리는 한집에 모여 산다

제주대학교 학교 1학년 4반 이름 장영희 6

- 3/4박자로 8마디 작곡하기 -

(여러분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  
성의껏 작곡하기 바랍니다)

가사 : 산새들 숲속에 모여 살고  
우리는 한집에 모여 산다.



산새들 숲속에 모여 살고



우 - 리는 한집에 모여 산 다.



2. 사후 평가지 샘플 - 비교반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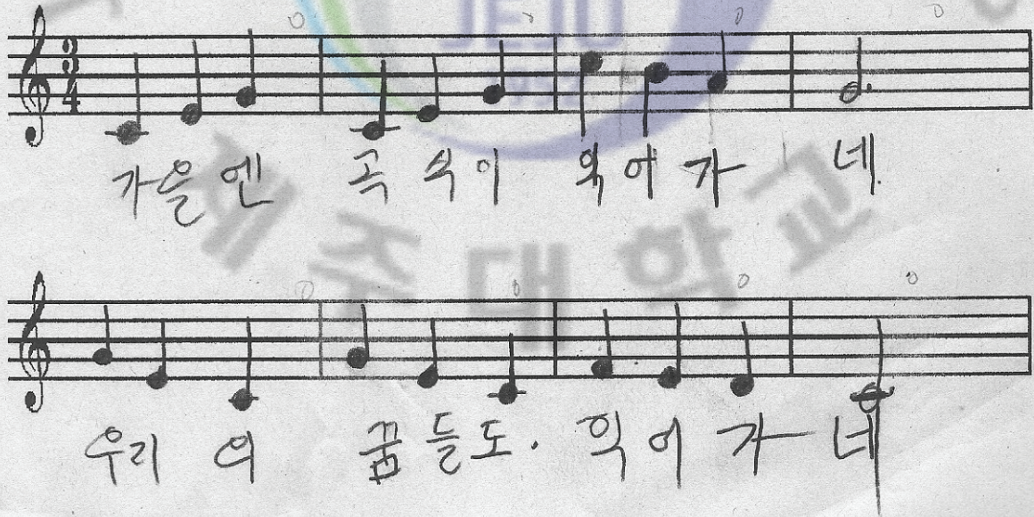
학습평가지

| 학년 5 반 이름 황준

\* 아래의 가사를 읽고 한도막형식의 노래를 작곡하세요.

가사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박자 - 3/4 박자 사용하기



The image shows two staves of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The first staff is for the lyrics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and the second staff is for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Both staves are written in treble clef with a 3/4 time signature. The notes are simple quarter and eighth notes, and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There are some small circles above the notes, possibly indicating breath marks or accents.

# 학습평가지

학년 3 반 이름 김민서

\* 아래의 가사를 읽고 한도막형식의 노래를 작곡하세요.

가사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박자 - 3/4 박자 사용하기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a 3/4 time signature song. The first line of music is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The notes are G4, A4, Bb4, C5, Bb4, A4, G4, F4, E4, D4. Roman numerals I, II, III, IV, I are written above the notes. The lyrics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second line of music is also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notes are G4, A4, Bb4, C5, Bb4, A4, G4, F4, E4, D4. Roman numerals II, I, V, I are written above the notes. The lyrics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are written below the notes.

## 학습평가지

| 학년 2 반 이름 오 \_\_\_\_\_

\* 아래의 가사를 읽고 한도막형식의 노래를 작곡하세요.

가사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박자 - 3/4 박자 사용하기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I(으뜸화음) IV(바금딸림화음) V(딸림화음) I(으뜸화음)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I(으뜸화음) IV(바금딸림화음) V(딸림화음) I(으뜸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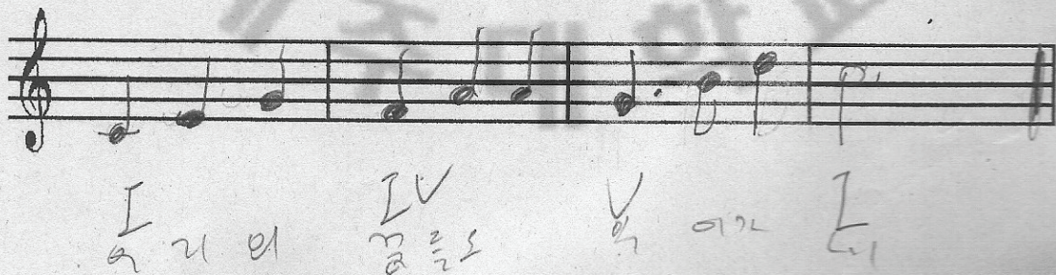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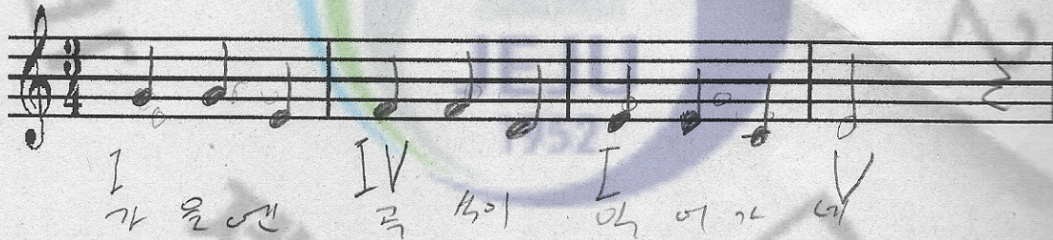
## 학습평가지

| 학년 2 반 이름 문정민

\* 아래의 가사를 읽고 한도막형식의 노래를 작곡하세요.

가사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박자 - 3/4 박자 사용하기



### 3. 사후 평가 결과 샘플 - 화성 기반 선율보 수업

#### 학습평가지

(학년) / 반 이름 (리 )

\* 다음의 가사를 읽고 한도막형식의 노래를 만드세요.

가사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3/4박자 작곡하기  
선율선 만들기

선율												
가사	가	을	엔	곡	식	이	익	어	가	네		
화음	I			I			I			I		

선율												
가사	우	리	의	꿈	들	도	익	어	가	네		
화음	I			I			I			I		

#### 선율보에 그리기

	1	2	3	1	2	3	1	2	3	1	2	3
도												
솔												
미												
도												
화음	( I 도)			( I 도)			( I 도)			( I 도)		

	1	2	3	1	2	3	1	2	3	1	2	3
도												
솔												
미												
도												
화음	( I 도)			( I 도)			( I 도)			( I 도)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

## 학습평가지

) 학년 4 반 이름 (김영민 )

\* 다음의 가사를 읽고 한도막형식의 노래를 만드세요.

가사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3/4박자 작곡하기  
선율선 만들기

선율			
가사	가   을   엔	곡   식   이	익   어   가   네
화음	I	IV	I V

선율			
가사	우   리   의	꿈   들   도	익   어   가   네
화음	I	IV	V I

### 선율보에 그리기

	1	2	3	1	2	3	1	2	3	1	2	3
도			5			3			레			
솔	///		라	///		시	///		도	///	///	///
미		///	파		///	하	///	///	레	///	///	///
도			5			5			레	///	///	///
화음	( I 도 )			( IV 도 )			( I 도 )			( V 도 )		
	1	2	3	1	2	3	1	2	3	1	2	3
도			5			레			5			
솔	///		라	///		시	///		도	///	///	///
미		///	파		///	하	///	///	레	///	///	///
도			5			레	///	///	5	///	///	///
화음	( I 도 )			( IV 도 )			( V 도 )			( I 도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 학습평가지

| 학년 4반 이름 ( 홍유진 )

\* 다음의 가사를 읽고 한도막형식의 노래를 만드세요.

가사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3/4박자 작곡하기  
선율선 만들기

선율			
가사	가   을   엔	곡   식   이	익   어   가   네
화음	I	I	IV

선율			
가사	우   리   의	꿈   들   도	익   어   가   네
화음	I	I	

### 선율보에 그리기

	1	2	3	1	2	3	1	2	3	1	2	3
도				도			도			도		
솔			솔			솔	라			솔		
미			미			미	파			미		
도	도		도			도	도			도		

화음 ( I 도) ( I 도) ( IV 도) ( I 도)

	1	2	3	1	2	3	1	2	3	1	2	3
도			도	레			도			도		
솔			솔	시			솔			솔		
미			미	솔			미			미		
도	도		도	레			도			도		

( I 도) ( I 도) ( V 도) ( I 도)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 학습평가지

학년 4반 이름 ( 홍유진 )

\* 다음의 가사를 읽고 한도막형식의 노래를 만드세요.

가사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3/4박자 작곡하기  
선율선 만들기

선율				
가사	가   을   엔	곡   식   이	익   어   가	네
화음	I	I	IV	

선율				
가사	우   리   의	꿈   들   도	익   어   가	네
화음	I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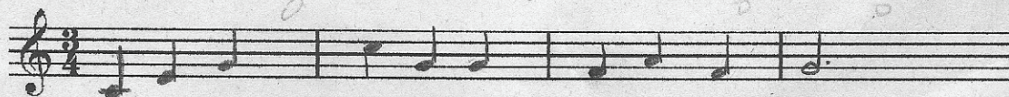
### 선율보에 그리기

	1	2	3	1	2	3	1	2	3	1	2	3
도				도			도			도		
솔			솔			솔	라		솔	솔		솔
미			미			미	파		미	미		미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화음 ( I 도 ) ( I 도 ) ( IV 도 ) ( I 도 )

	1	2	3	1	2	3	1	2	3	1	2	3
도			도			레			도	도		도
솔			솔			시			솔	솔		솔
미			미			솔			미	미		미
도	도		도			레			도	도		도

( I 도 ) ( I 도 ) ( V 도 ) ( I 도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 학습평가지

1학년 1반 이름 ( 이 )

\* 다음의 가사를 읽고 한도막형식의 노래를 만드세요.

가사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3/4박자 작곡하기  
선율선 만들기

선율	솔 어 도	파 파 파	미 솔 도	시
가사	가 을 엔	곡 식 이	익 어 가	네
화음	I	IV	I	V

선율	도 미 솔	라 라 라	솔 시 레	도
가사	우 리 의	꿈 들 도	익 어 가	네
화음	I	IV	V	I

### 선율보에 그리기

	1	2	3		1	2	3		1	2	3		1	2	3
도				도				도				레			
솔	///			라	///	///	///	솔	///			시	///	///	///
미		///		파	///	///	///	미	///			솔			
도			///	도				도				레			
화음	( I 도 )			( IV 도 )			( I 도 )			( V 도 )					
	1	2	3		1	2	3		1	2	3		1	2	3
도				도				레				도	///	///	///
솔			///	라	///	///	///	시	///			솔			
미		///		파	///	///	///	솔	///			미			
도	///			도				레				도			
	( I 도 )			( IV 도 )			( V 도 )			( I 도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 학습평가지

1학년 1반 이름 (고 )

\* 다음의 가사를 읽고 한도막형식의 노래를 만드세요.

가사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 3/4박자 작곡하기

### 선율선 만들기

선율												
가사	가	을	엔	곡	식	이	익	어	가	네		
화음												

선율												
가사	우	리	의	꿈	들	도	익	어	가	네		
화음												

### 선율보에 그리기

	1	2	3	도	1	2	3	레	1	2	3	라	1	2	3
도				도				레				라			
솔			///	솔	///			시			///	시	///	///	///
미	///	///		미	///	///		솔	///	///	///	솔	///	///	///
도	///		도	도		///	레	레	///		라	도	///	///	///

화음	( I 도 )			( I 도 )			( V 도 )			( V 도 )		
	1	2	3	1	2	3	1	2	3	1	2	3
도				도			레			도		
솔			///	솔	///		시			솔		
미	///	///		미	///	///	솔	///	///	솔	///	///
도	///		도	도		///	레	레	///	도	///	///
	( I 도 )			( I 도 )			( V 도 )			( 도 )		

가을엔 곡식이 익어가네

우리의 꿈들도 익어가네